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지음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9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전종욱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9년 3월 16일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jetspeed@nate.com

표지디자인 · 편집 | 한국인쇄

ISBN | 978-89-89741-95-4

정가 8,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일러두기

이 책의 저자는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이 책의 내용 일부는 진리침례교회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1. 세상을 고발합니다	005
2.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026
3.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	047
4. 이것이 인생일 수 없습니다	080
5. 죽음이란 무엇인가	098
6. 사람은 왜 죽는가	109
7. 죽은 이후	123
8. 죽음과 부활	134
9. 죽음은 패배하였고 사망은 폐하여졌다	157
10.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166
11.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80
12.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191
13.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인가	205
14.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216
15.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다	230
16.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241
17.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248
18.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258
19. 용의 정체	275

1. 세상을 고발합니다

1. 세상은 좋은 곳인가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는 놀랄만합니다. 의학의 발달은 질병에 짓눌려 온 인간에게 무병장수의 꿈을 갖게 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주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행성을 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의 증가와 생활의 편리성에 일조합니다. 생활의 편리는 30, 40년 전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세상은 좋은 곳일까요?

우리는 광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만 보면 그 상품은 최고의 상품이며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광고 상품에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 런데도 정보가 부족한 우리는 상품이 아닌 광고를 보고 구매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품에 실망합니다. 이것이 광고의 효과입니다. 이 세상도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기위해 엄청난 자기광고를 합니다. 세상의 발전을 알리고 편리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서도 알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믿고 자신의 전 인생을 맡깁니다. 과연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2. 세상이 강조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돈, 건강,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돈 - 돈이면 죽은 사람도 부린다고 할 만큼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돈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 30, 40년 전에는 60세, 70세까지 살면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까지 살라고 하면 저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으며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쩌면 건강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 - 성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성공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은 세상의 키워드입니다.

돈, 건강, 성공 다 좋습니다. 이 글은 돈 건강 성공이 나쁘다고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 건강,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강조

하는 돈과 건강과 성공을 우리가 모두 가졌다고 합시다. 억만 장자도 건강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면 돈과 성공을 모두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70~80년 유용하나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단순히 인생을 끝내는 것이라 해도 심히 억울하지만 죽음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요, 죄 있는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죽음과 죄와 지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돈, 건강, 성공에 눈멀게 하여 죽음과 죄와 지옥이라는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태 복음 16:26)

2)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도박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였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박장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박장에는 3가지 즉 거울, 창문,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도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지 못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강조하고 조성하는 환경에 빠져들면 들수록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 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21~ 23)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돈, 건강, 성공에 눈멀게 하여 우리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인생은 파괴되어 갑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요한일서 5:19)

3)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신격(사람의 인격과 같은 것임)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물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꽃의 독특한 디자인, 동물이나 식물의 생존 방법, 번식 방법, 새끼를 키우는 방법, 곤충이나 식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농부의 씨 뿌리는 단순함에도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만일 농부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놀랄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쁘며 무엇인가 쫓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

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욥기 12:7~9)

3. 세상의 흐름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문명은 인간의 게으름을 만족하기 위한 편리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문화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에 눈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흐름은 어떠한 것이든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예외 없이 타락과 부패와 파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10년 전보다 악하고 30년 전보다는 많이 악하고 10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악합니다.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5년 후 10년 후가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타락할 것이며 훨씬 악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세계화

세계화는 현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여행, 교통, 통신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존립 문제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세계화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며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계화는 왜 진행되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계화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로 전 세계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적인 붕괴는 밀접하게 연결된 여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국가의 위험은 전 세계의 위험이 됩니다. 세계화는 계란을 한 그릇에 다 담은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계란을 각각의 그릇에 나누어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킨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이전에는 한 국가의 위기는 그 나라에 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사도행전 17:26,27)

그러나 세계화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위기가 빈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세계를 위기로부터 구해 줄 슈퍼맨(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치관과 사고를 획일화하는데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은 세계인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합니다. 갈수록 전 세계인의 사고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생각을 같게 되면 누군가(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셋째로 절대적 도덕 기준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

족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여러 나라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치관이나 특정한 도덕 원리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요 절대 진리요 절대 도덕이요 절대 권위요 절대 의가 되십니다. 사람이 선과 진리와 도덕과 권위와 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절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상대적 선, 상대적 진리, 상대적 도덕, 상대적 권위, 상대적 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계화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듭니다.

2) 세대 간의 단절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도는 기성세대가 따라가기에 벅칩니다. 좋아하는 음악의 패턴이 60대, 40~50대, 30대, 20대, 10대가 다 다릅니다. 템포가 점점 빨라집니다. 가사 내용도 서정적인 것에서 이제는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전자기기의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는 기대되는 일이겠지만 부모세대에게는 당황스런 일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 표현이 다릅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공통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대 간에 엄청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가져오는 가장 큰 해악은 부모의 믿음, 도덕관,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자녀는 누구의 보호막도 없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단절

은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세상에 그들의 운명을 내맡긴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세대의 단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3) 지식의 증가

지식의 증가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지도가 완전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 인간의 지식이 놀랍게 증가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다니엘서 12:4)

우주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지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식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면 늘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며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것을 파괴하며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크게 늘어남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어린아이도 아는 기초적인 하나님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한 지식이며 누구를 위한 지식입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8장 2절)

4) 유행

유행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기능이 다

하여서가 아니라 유행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대단히 민감하고 유행에 목숨을 걸지만 알고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유행의 속성을 간파하였습니다.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전도서 1장 9~11절)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오래된 것들을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킬까요?

유행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새것을 찾게 함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만들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합니다. 또 유행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세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달콤한 꿀맛에 빠진 파리의 결말을 압니다. 유행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5) 외모 지상주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 성형이 유행합니다. 요즘은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젊게 보이는 것도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외모를 중시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이 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내면을 가꿀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사무

엘기상 16:7b).

하나님은 사람이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선한 행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디모데전서 2:9,10). 사람이 마음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옷차림은 단정하게 할 것이요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곧바르게 걷고 정직하게 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디모데전서 2:9). 그러나 외모를 중시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 되리라”**(야고보서 2:1,9).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 옳을까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옳을까요?

6) 권위의 실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가장 실감나는 것은 권위입니다. 이제 권위라는 말은 구시대적인 것이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대인의 조건인양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위 역시 철저하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상징하던 매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이제 교사가 아이들에게 고상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로부터 해방된 아이들은 그만큼 자유로워졌고 살판나는 세상이 되었고 그들의 인권은 하늘만큼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세상의 악에 빠져들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는 아이들을 어리석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악을 깨닫지 못

애며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잠언 22:15)

“파랑게 명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배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잠언 20:30)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잠언 23:14)

아이들의 인권을 들먹이는 누구도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악에 빠져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교사의 매보다는 낫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답은 아이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위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처음부터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잘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의 권위는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조용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는 바로 이 권위를 부정함으로 세상을 혼란케 만듭니다. 혼란케 된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7) 영생의 추구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계놈을 통해 무병장수를 꾀합니다. 즐기세로나 체세포복제를 통해 영생의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세상에 없는 것들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생명과 의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상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들이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속에 이것들은 없습니다. 왜 일까요?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한다면 생명이 있는 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요한복음 1:4).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과 의와 평안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과 의와 평안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과 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죽음과 죄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과 죄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의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의가 필요합니까?

평안을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과 의와 평안을 값 없이 얻게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5. 세상의 실체

이제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도박장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장을 세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든 사악한 그 누군가(마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악한 곳입니다. 거대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습니다. 의와 평안과 진리와 사랑이 없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육체적 쾌락이 사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합니다. 죽음의 세상입니다. 죄와 불법과 거짓의 세상입니다. 유행과 화려함으로 속이는 세상입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며 꿈을 키우던 세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는 망각한 채 악한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이 세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한일서 2:15~17)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것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세상에 없으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당신이 찾지 않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예컨대 지혜, 의, 거룩히 구별됨, 구속(救贖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양자 삼으심, 믿음, 사랑, 평안, 영광의 소망, 안식, 승리, 만족, 영원한 생명, 자유, 안전, 보장된 신분, 영원에 걸맞는 명예로운 지위, 죄로부터의 자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빛, 진리, 부활, 겸손, 하나님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집 등등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단 한 가지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8:9)

1) 지혜, 의, 성별, 구속이 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 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전서 1:30,31)

2) 믿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2)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갈라디아서 2:16),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갈라디아서 2:20), 나의 믿음(요한계시록 2:13)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라디아서 2:20)

3) 사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나니”(요한복음 15:13)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4)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 세상에서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환경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없애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얻은 베드로는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오늘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이 그들의 평안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5)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28)

6) 승리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서 25:8)

우리는 누구나 승리를 위하여 70~80년의 인생을 열심히 경주합니다. 그러나 경주의 결과는 우리를 심히 낙담케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경주하였음에도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경주에

서 패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비통함으로 쓸쓸히 인생의 경기장에서 퇴장합니다. 승리의 환호나 기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패배한 인생!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그것도 단 한번 뿐인 인생의 경기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길로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인생에서 승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패배한 우리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으며 죄를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부정한 영들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로마서 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디모데후서 1:10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7) 영원한 생명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11~13)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속박 아래 있는 인생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불멸을 꿈꾸어 왔으나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8)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죽음과 같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이 인생을 삼키듯 예수님도 삼켰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죽음의 권능이 이번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전례가 없으므로 그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린도전서 15:55~57)

9)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a)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종교들이 자신 혹은 자기의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 혹은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예레미야서 17:9)? 거짓된 사람들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수기 23:19)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짓말과 함께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온갖 거짓말에 환멸과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거짓말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에는 진리가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 진리와 함께 영원을 살 것입니다.

10)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13)

신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분을 아시나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요한복음 8:44). 마귀의 자녀, 이것이 이 세상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위 고하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종이 주인의 아들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 있으며 주인의

아들보다 훨씬 잘 생겼을 수 있고 주인의 아들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의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못나고 똑똑하지 못하다 해도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종과 아들을 결정짓는 것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도 멸망 받을 마귀의 자녀로서 영원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려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살게 됩니다.

11)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mansions)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 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12) 문제들에 대한 해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요한복음 1:3)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나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많으나 해결이 없는 세상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문제는 있되 해결이 없는 곳에서 영원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

이시므로 그분 안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해답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빈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생명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교육의 문제, 경제 문제, 세계 질서의 문제, 전쟁의 문제 등 어떤 문제이든지 그분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함에 대한 일부입니다. 이외에 어떤 것이 필요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부요함이 되십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우리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겪어 본다면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찾아 온 아프리카의 세바 여왕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열왕기상 10:6,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값을 지불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3:8,9)

2.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걸려오는 보이스 피싱, 사기, 과대포장, 부풀리기, 협정위반, 계약파기, 헛말, 달콤한 거짓말, 공약 불이행, 위선, 위증, 분식 회계, 사칭, 기만, 무고, 둘러댐, 변명, 위조지폐(서류), 모조품, 유언비어, 흑색선전, 허위 정보, 가짜 계약서, 배신, 불신, 왜곡, 진실 은폐, 유사 제품, 가명, 가면, 가식, 가상현실, 허상, 간첩, 바지 사장, 저울을 속임, 원산지를 속임, 꼼수, 허튼수작, 전시행정, 생색내기, 무신론, 진화론, 사이비, 아부(아침), 간신... 이러한 단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거짓 혹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이러한 거짓과 거짓말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거짓 혹은 거짓말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과 거짓말이 가득할까?

1. 세상에 거짓과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도 익숙해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 만일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진실일 것입니다. 속는 일도 없고 불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을 듣든지 그대로 지켜지는 세상. 정치인들의 공약은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전부 진실인 세상. 기업들이 하는 모든 광고가 그대로 사실인 세상. 최고라고 하면 최고이고 원조라고

하면 원조이고 낯는다고 하면 낯고 좋다하면 좋고 젊어진다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면 행복해지고 쓸수록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 열심히 쓸수록 돈을 많이 버는 세상. 만족과 행복을 주고 품위와 품격을 높여주는 세상. 매일 듣고 보는 모든 뉴스가 100%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과 글과 행동이 진실입니다. 법정에서 원고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의 진술 모두가 진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는 거짓이 없었고 진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을 무엇이 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과 대상이 일치하였습니다. 사자, 호랑이, 소, 말, 고양이, 개 등의 이름을 혼동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없는 시대, 아담의 덕택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가득한 오늘의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양의 털을 쓴 늑대를 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스파이를 선량한 시민 혹은 유능한 인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선자를 의인 혹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광고하는 제품을 최고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값이 비싼 제품은 좋은 제품일 것이라고 믿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에서 ‘원조’라고 하는데 원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남자를 위해 남자(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보고 사랑을 고

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아담이 여자에게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숨기거나 감추거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들의 전부였고 그대로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결점 많고 허물 많은 것을 다 아시고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신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꾸미고 둘러대고 과장하고 능력 있게 멋있게 보이려 합니다. 남자들은 품생품사하고 여자들은 가꾸고 꾸미기에 바쁩니다. 성형 수술도 불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는 너무도 모자라는 것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상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과 결점을 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가꾸어지고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꾸며진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꾸며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꾸며진 것을 사랑하였지 그의 진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여자(이브)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만드

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먹지 않았으므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여자만 죽고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직접 들었으므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그에게 건넬 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진실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사랑은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신 그때에는 세상에 진실과 진리만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거짓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했을까?

2. 창조주 하나님

처음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민수기 23:19)?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디도서 1:2)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판단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

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3:4).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므로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그대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하시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으리라” 하시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시면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으면 지옥에 가리라” 하시면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을 명하시면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하시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로마서 8:31~35)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진실할까요? 70억 인구 아니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인류 전체의 진실을 모두 합하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진실이 너무 무거워 그런 무게를 달 수 있는 큰 저울이 없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저울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저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저울도 상관

없습니다. 저울이 정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인류의 진실을 저울에 올린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시편 62:9)

허무는 아무리 더해도 무게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실을 다 합해도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이 하나님과 견줄만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만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요한복음 17:17)

진리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시편 12:6).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는 진실과 진리만이 나옵니다. 현 세상의 거짓과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한일서 2:21b)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과 거짓말들은 어디서 왔을까?

3.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것보다 간교하였습니다(창세기 3: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6,17)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3:4)

뱀은 다른 거짓말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3:5)

여자는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뱀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뱀은 마귀입니다(요한계시록 12:9). 예수님께서서는 그 뱀(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요한복음 8:44)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세운 왕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마태복음 4:8,9).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뱀)가 건설한 이 세상은 거짓과 거짓말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 세상이 거짓과 거짓말로 가득

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대표적인 거짓말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잘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공기, 소리, 전자파, 진동, 마음, 사랑, 미움, 증오...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귀니 사탄이니 용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듣고 말하지만 그의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사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사람은 그것이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마음 놓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난 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에베소서 2: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2천 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

님의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로마서 1:19,20)

2) 세상은 죽음의 원인이 질병, 노화, 전쟁, ...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막으려고 건강과 노화방지와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무방비입니다. 사실은 질병도 죄 때문이며 노화도 죄 때문이며 전쟁도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lusts)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야고보서 4:1)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그러나 당신은 세상에 서 교과서나 TV나 학교에서나 교양 프로그램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죄에 대하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3)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며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현 세상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성공하며 멋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것인가에만 몰두합니다. 죽음 이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보면 알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누구도 우리에게 돌아와서 알려주

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를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므로 사람들의 죽음 이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누구에게도 죽음 이후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멸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이편과 저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27).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복음 3:16~18)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천 년 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4) 세상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사람들이 상상해 낸 가상(假想)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말하지만 정작 지옥의 실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마가복음 9:43,44).

하나님과 마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문제

첫째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옥이 있다고 믿고 지옥에 대비하였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만에 하나 죽어보니 지옥이 없다고 해도 지옥에 가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에서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죽어보니 지옥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옥에 대하여 잘 대비하였으므로 지옥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본전입니다. 다음으로, 지옥이 없다고 믿고 지옥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죽어서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득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지옥이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요 아니면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당신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안전한 쪽에 자신의 귀중한 인생을 거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정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을 가보았느냐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시다. 그렇다고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지옥을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음 이후의 일을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죽음 이후를 잘 아는 누군

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죽음 이후를 잘 아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세상(마귀의 왕국)의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셋째로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설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조심합니다.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나름대로 지옥을 대비하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 살게 할 수단이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도덕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세상의 거짓말이 얼마나 사악하며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5) 세상은 누가 지옥에 가는지 침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해주지 않아도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다 압니다.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솔직하게 “지옥”이라거나 혹은 “하늘나라는 못가지요”라고 대답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다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두려운 곳이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사도행전 2:24,27)

6) 세상은 사람들이 양심껏 살면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안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 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21~23)

이것들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양심껏 살면 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듣기에는 좋으나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로마서 3:23~28)

7) 세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교도 노력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중반을 넘긴 50~60대에게 물으면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80년 90년을 살도록 노력하면 될까요? 그런 연로한 분들에게 물어도 자신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지레 포기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보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며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TV,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주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도 갈 수 있고 어른들도 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더 많은 노력이나 희생이나 시간이 있어야 간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반으리라.”(사도행전 16:31)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사람들은 세상도 우연히 생겨났고 생물도 우연히 생겨났고 천지도 우연히 생겨났고 태양계도 우연히 생겨났고 지구를 둘러싼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이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의 모든 기능들이나 조직이 우연히 생겨났고 세상에 만연한 거짓과 거짓말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도 누군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나 유언비어도 누군가가 지어내었고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거짓말도 누군가가 시작 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마귀입니다.

4. 거짓말의 목적

마귀는 그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요한계시록 12:12b). 그렇다면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얻는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까?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으며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 성황당, 장승, 용왕, 산신령, 부처, 바알, 금송아지, 하늘여왕, 일월성신 ... 별의별 모양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막연히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들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본체는 마귀입니다. 이들을 우상(偶像)이라고 합니다. 왜 마귀가 우상을 통해 이토록 전 세계 각지에서 경배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왕의 영예는 그 백성의 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잠언 14:28). 교만한 왕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큼을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세상 왕국을 미끼로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노력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고 있으므로 마귀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의 욕망들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요한복음 8:44-45,47)

5. 거짓말의 결과

거짓말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말이 없을 때 생명력을 갖습니다. 만일 진리 안에 조금의 거짓말이라도 들어가면 진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1%의 거짓말은 진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가 세상에 거짓말을 들여온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도 진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못 믿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진리도 못 믿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진리를 경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경계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심이 진리까지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진리까지 믿지 않는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다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입니다.

6.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진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콩은 천대(千代)를 내려가든 만대를 내려가든 아무리 대를 이어가며 심어도 콩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콩은 처음부터 콩이었습니다. 콩이 팥이 되거나 팥이 콩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콩은 처음부터 콩이요 팥은 처음부터 팥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쟁이들의 논리입니다. 진화론의 논리라면 우리는 어떤 진리도 없고 어떤 거짓말도 없게 됩니다. 진리가 거짓말로 진화 할 수 있고 거짓말도 진리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첫째 방법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에서 나오고 거짓말은 반드시 거

짓에서 나옵니다.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 없고 거짓에서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한일서 2:21). 그렇다면 진리와 거짓은 구별이 쉬워집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였고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즉 진리와 거짓은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한복음 17:17)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누군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은 후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도 마귀도 없다. 용은 상상의 동물일 뿐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라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람이 양심껏 살면 죽어서 좋은데 갈 수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교육으로 인간을 개선할 수 있다. 등등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거짓말도 간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한다 해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전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여운 어린 아이를 보고 한 말들을 거두절미하고 “하, 그놈 참 밍상이네” 혹은 “그놈 참 못생겼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왜곡한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인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입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믿으면 손해가 되고 안 믿어도 손해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예컨대 세상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악을 마음 놓고 저지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휘장 뒤로 넘어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때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서는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알겠지만 늦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이요 혼을 노리는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으면 생명을 지옥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혼을 노리는 사기꾼이요 세상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또 거짓말은 안 믿어도 해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을 안 믿어도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서 해를 입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으면 반드시 유익이 있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실 오실 때 부활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울부짖음도 슬픔도 없으며 아픔

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로부터 얻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7. 거짓말에서 배우는 교훈

비록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짓말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1) 거짓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진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명 브랜드는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없다면 짝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에 별 볼일 없는 것의 짝퉁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시한 것보다는 짝퉁이 오히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 볼일 없는 것의 짝퉁 행세를 할 리가 없습니다. 짝퉁은 유명 브랜드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짝퉁이 있다는 것은 그 상품이 유명하다는 증거입니다. 유명할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가 매우 중요하며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엄청난 역설이요 증거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거짓말이 필요 없습니다. 믿어도 그만이고 믿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진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내었을 때는 진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진리를 얻는다면 이 세상을 얻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마귀가 줄 수 있고 그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이 세상이 당신에게 진리를 줄 수 없습니다. 짝퉁이 아닌 진리를 택하십시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44)

2)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줍니다. 지금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한 것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진리에서 옵니다. 거짓은 불신을 낳고 진리는 믿음을 낳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혜 오느니라.”(로마서 10:17)

사람이 믿지 못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4)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3.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도시도 번창하다가 어느 때인가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국가도 멸망하고 도시도 멸망하고 개인도 멸망합니다. 국가이거나 도시이거나 개인이거나 멸망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1. 루시퍼(마귀)

그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는 처음에 죄 없이 지음을 받았고 아침의 아들이요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받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고 많은 상품을 가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홍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에스겔서 28:13a). 그는 창조된 날로부터 자신의 길들에서 완전하였으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

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는 상품이 많은 것과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심히 교만하여졌습니다(에스겔서 28:12~19). 그는 피조물이면서 창조주 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이사야서 14:12~14)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능을 이용하여 한 무리의 천사들을 끌어들여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사야서 14:16~20)

루시퍼, 그가 처음부터 마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였습니다(에스겔서 28:12). 루시퍼는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죄가 발견된 때로부터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요한복음 8:44) 처음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요한일서 3:8)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와 함께 반역한 천사들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41b). 마귀는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

려가리로다.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같이, 칼에 찢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렁이의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네 무덤에서 쫓겨났도다.”(이사야서 14:15,19)

땅으로 쫓겨난 그가 영원한 불에 멸망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까?

1) 그는 에덴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 짓게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2)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은밀하게 활동하며 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에베소서 2:2b)

3)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4:3,4)

4) 이 세상의 신과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경배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

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출애굽기 20:3~5a)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偶像)들은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모두 마귀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인양 행세하며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형상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예외 없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그 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예레미야서 10:11,12)

5) 마귀는 전도자들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마귀가 당신에게서 복음을 거절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밭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버렸고 ……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누가복음 8:5,12)

6) 지금 이 시각에도 그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영과 우상과 종교와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물은 진화되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지옥은 없다. 하늘나라도 없다. 마귀(사탄)도 없다.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하나님은 없다. 심판도 없다. 사람은 죄가 있을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죄는 금욕이나 자기 수양이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의 본바탕은 선하다.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의 출처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해 주었을까? 하나님은 아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정보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8:44). 즉 당신이 막연하게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말쟁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마귀 자신만이 멸망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과 함께 영원한 불에서 멸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천지에 이보다 더 사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멸하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그 심판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요한계시록 19:20). 마지막으로 마귀도 그곳에 던져집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요한계시록 20:10)

2.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천사 같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가졌고 동경의 세상인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천사로는 천사장 미가엘과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는 아름답고 깨끗하며 순결하고 선하며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인데도 마귀의 반역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들의 정해진 처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키고 있어야 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반역에 동참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의 처소들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결과 땅이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땅에 홍수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41)

3. 노아 때의 대홍수

노아홍수와 노아방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아홍수는 BC 2355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홍수 사건

입니다.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고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 대홍수로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뿐이었습니다. 배를 말하는 한자 船(배 선)은 층이 있는 배(舟)에 여덟 사람(八)이 문으로 들어가는(口) 노아방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아홍수는 각 나라마다 있는 홍수설화의 근원입니다. 바빌론, 앗수르,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피지, 페루, 멕시코 등 전 세계에 걸쳐 거의 같은 연대에 대동소이한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노아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물이 가장 높은 산보다도 약 7.5m가량 더 차올라 노아방주에 탄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 외에는 땅 위에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대홍수로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심판을 하셨을까?

그 당시의 상황이 창세기 6: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1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 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 4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 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6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

로 인해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7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들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욥기 38:7).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할 때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체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창 6:3).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가 되었고 사람들도 육체가 되었습니다. 노아홍수로 인해 육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시편 82:6,7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이 사람들 같이 죽는 것은 그들이 사람과 같이 육체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루시퍼의 편에 들었다가 땅으로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 것은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천사와 사람이 결합하면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져 슈퍼맨 즉 거인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슈퍼 옥수수, 슈퍼 젓소, 슈퍼 ... 모두 유전자 변형에 의하여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영웅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우스가 단지 신화의 인물들이 아니라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당대에 강력한 자들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노아 당시의 지배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아닌 지극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창 6:5, 11-12)

당시의 세상을 살펴봅시다.

1) 거인 족속은 홍수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엠 족속(신명기 2:10,11), 삼숨 족속(신명기 2:20), 아낙 족속(민수기 13:33) 바산 왕 옥(신명기 3:11), 골리앗과 그의 아들들(사무엘기하 21:18~22)

2) 거인들은 출생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서 10절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고 합니다. 거인들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즉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거인들은 인간의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거인 골리앗은 삼천 년 전 블레셋 사람입니다. 우리는 키가 크고 힘

이 센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거인 골리앗에게는 동생이자 아들인 거인 라흐미가 있습니다(역대기상 20:5,8, 사무엘기하 21:19,22). 동생이자 아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골리앗은 어머니와의 음행을 통하여 라흐미를 낳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음행이 있었습니다(고린도전서 5:1). 르우벤도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창세기 35:22). 담무스가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음행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레위기 18:6~8). 거인들이 지배하던 그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사람의 딸들은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이요 명성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창세기 6:2). 일부다처의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의 딸들 즉 여자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힘에 의하여 억지로 그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이 그들의 뱀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더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출애굽기 2:23, 3:7,9을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4)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세기 6:5). 양심이 마비된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4:2)

5)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폭력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힘의 지배는 끝없는 폭력을 야기합니다.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11절)

6)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타락

한 천사, 거인,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습니다. 누가 더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7) 그들은 악한 세상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세상에 취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쳤어도, 멸망이 그들의 뒷덜미를 움켜잡는 순간까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 날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을 사랑하였고 악한 세상은 그들을 멋지게 속였습니다.(마태복음 24:38, 베드로후서 2:5)

극심한 폭력과 부패가 가득하고 쾌락에 빠진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씨가 말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을 남기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4. 소돔과 고모라

쾌락과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의 사해 주변 요르단 들판에 있었으며 BC1900년 경 하나님에 의하여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가 갈 곳을 먼저 택하게 하였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르단의 평야를 택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많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창세기 13:10). 기름지며 살기 좋은 땅에 있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그

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창세기 13:13)

소돔의 죄악들

1) 동성애가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므로 그들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낮선 두 남자가 소돔에 나타나 롯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창세기 19:4). 그들은 모두 남색(男色)하는 동성애자들로 롯에게 요구합니다.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19:5).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는 남색을 ‘소도미 Sodomy’ 라고 합니다.

2)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남녀노소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 둘 이렇게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3) 소돔이 기름진 땅에서 풍족하였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부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 없이 부요하였으나 이웃에게는 한 없이 인색하였습니다.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노라.”(에스겔서 16:49,50)

4)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경건치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롯을 건져 내셨으니”(베드로후서 2:6,7).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고 의식함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하려 왔는데도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남색하려고 롯과 다투었습니다.

5) 음행과 낯선 육체를 탐하였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다서 6,7). 낯선 육체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는 하나 사람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사람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아 사람이 아닌 낯선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성적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6)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세상에 그들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날에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누가복음 17:28~30)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은 죄가 크고 성적으로 극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의로운 롯의 가족은 전혀 내시고 남은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5.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창세기 12:6,7).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땅의 조금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사도행전 7:5). 그 이유는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창세기 15:16b).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통칭하는 말입니다(아모스 2:9). 사백 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의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공물을 보이지도 말고”**(신명기 7:1,2)

사백 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도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하지 않다고 즉시로 넘겨주지 않은 땅을 사백년이 지난 지금은 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실까? 그러면 400 년이 지나는 사이 가나안 사람들의 불법이 얼마나 많아졌을까?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 타락

신명기 12장입니다.

2 “너희가 소유할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위든지 작은 산 위든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진멸하고

3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을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는 어디를 가나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과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에도 있고 작은 산에도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습니다. 우상 천지입니다.

8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29 네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끊어 버리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30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 감으로 울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3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의 종교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가증하고

도 사악한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신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도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타락하고 악합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매우 열심이였으나 결과는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 타락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충격적인 가나안의 죄악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 1) 가까운 친족과의 음행(6)
- 2)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음행 혹은 아버지의 아내와의 음행(7,8)
- 3) 누이와의 음행(9,11)
- 4) 손녀나 외손녀와의 음행(10)
- 5) 고모와 이모와의 음행(12,13)
- 6) 숙모와의 음행(14)
- 7) 며느리와의 음행(15)
- 8) 형제의 아내와 음행(16)
- 9) 한 여인과 그녀의 딸과 음행함(17)
- 10) 한 여인과 그녀의 자매도 아내로 취함(18)
- 11) 생리중의 여인과 관계함(19)
- 12) 이웃의 아내와 동침함(20)
- 13) 우상인 몰렉을 위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바침(21)

14) 남색(男色) - 동성애(22)

15) 짐승과 관계함 - 수간獸姦(23)

16) 접신술사들과 마술사를 받아 줌(레위기 20:27)

레위기 18:24,27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레위기 20: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 타락은 이성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인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유다서 10)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이토록 악한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되 그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6.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 쇠용광로요 속박의 집이요 노예들의 집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10가지의 놀라운 표적을 보이심으로 파라오가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과 이집트를 구별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하시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도 압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출애굽기 3:7,8).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보라, 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앞에 두셨은즉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신명기 1:21).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사람씩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여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라, 하니라”(민수기 13:23~29). 아낙 자손은 거인족속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민수기 13:30).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때꾸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13:31~33). 이에 이스라엘은 심히 절망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14:2~4).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10번이나 보았고 바다와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을 더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앙을 징벌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민수기 14:21~23)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 지니 이로서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34,35)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3,550명이었습니다(민수기 1:46). 그 중에서 40년의 광야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가족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은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집에 당신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거나 강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요한 복음 10:10)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7.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이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우리라.”(마태복음 11:23,24)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로 주변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금 받는 곳이 있고(마태복음 9:9)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마태복음 8:8)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오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마태는 그 도시의 세리였습니다(마태복음 9:9). 베드로의 집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마태복음 8:14).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마태복음 4:13) 베드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며 가버나움을 자기의 도시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9:1). 그만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심(마태복음 8:5~10)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게 하심(마태복음 8:14,15)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마태복음 8:16)

회당에서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고치심(마가복음 1:21~28)

마비 병 환자를 고치심(마가복음 2:1~12)

공세를 받는 자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공세를 요구하자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동전 한 개로 두 사람의 공세를 해결하심(마태복음 17:24~27)

어떤 귀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열병이 들었는데 가나에서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심(요한복음 4:46~54)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과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요한복음 6:24~59)

가버나움의 죄와 심판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도시(his own city)로 애정을 가지신 가버나움에서 오랜 시간 거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마비 병 환자의 경우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마9:2).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야가 그들의 눈앞에서 왕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권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야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요한복음 1:12), 가버나움은 자신들을 자랑하여 하늘에까지 높였으나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아합 왕

아합은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열왕기상 16:30).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그녀의 부추김으로 우상들을 따르며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우상 바알을 섬겼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안보입니다. 거기에는 아합은 자기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거짓증인들을 내세워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아합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피도 흘리라, 하라. ...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왕상 21:19,24)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27절)

아합의 겸손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29)

2)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아시리아는 고대의 대제국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의 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역하면 아시리아를 사용하여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사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요나 3:4)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니느웨는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굶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놓고 굶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속에 앉았습니다. 악한 행위를 버리고 폭력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전역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 떼나 양 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굶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요나 3:7~9)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 하시니라.”(10)

3) 창녀 라합

라합은 요르단 강의 건너편 가나안의 땅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죄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리고는 저주 받았고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두 사람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여리고의 상태를 파악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 살게 한 라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만은 파멸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가 악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가?

우리는 이 세상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락을 채워주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날로 편리한 기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얼마나 즐길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세상이 물질적인 면에서 살기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평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요한복음 7:7)

마가는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마가복음 8:38)

요한은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요한일서 5:19)

바울은 이 세상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졌으며 (빌립보서 2:15) 악하다고 평가합니다.(갈라디아서 1:4)

세상은 어떤 곳인가?

만일 사람들의 평가가 옳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의 평가가 옳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평가해 봅시다. 세상은 지구로서의 땅을 말하기도 하고(사무엘기상 2:8)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한복음 3:16)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체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체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즉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요(고린도후서 4:4)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요한복음 12:31)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에베소서 2:2). 마귀가 이 세상왕국의 주인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충족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스포츠, 취미, 오락 등등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기 때문이라”(요한복음 8:44).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가 만든 세상이 좋은 곳일 리가 없습니다(1장의 루시퍼를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지만 거짓말쟁이 마귀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상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세상에 빠지게 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악한 세상에 가두어두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입니다(사 14:17). 그러므로 세상에서 난 모든 것들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모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악함

1) 세상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였으나 그 재림의 예언들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예수들과 거짓 예언들은 모두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마 24:5).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들을 퍼뜨립니다.

예컨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

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며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빼고는 다른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빼먹은 그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2)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세상이 빛으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길을 찾지 못하며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 수 없으며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죄 가운데 묶어둡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둠은 예외없이 마귀에 편에 서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모르므로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요한복음 1:4,5). 빛이신 예수님께서로 나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

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한복음 3:19,20)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요 길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3)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줍니다. 또 말씀은 살아 있으므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근심과 염려로 말씀을 숨 막히게 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마태복음 13:22)

4)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요한복음 7:7). 악한 것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악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5)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부모가 자기자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자녀를 악한 세상에서 분리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모르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8,19)

6)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모르니라”(요한일서 5:19).

7)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요한복음 16:20a)

세상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기 때문이었습니다(마태복음 23장). 세상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잡히시고 거짓 증인에 의하여 고소당하시고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자신들을 정죄하던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요 사랑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생명의 통치자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친히 자신을 화해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당

연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곳입니다. 사람이 이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요한일서 2:15~17)

악한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지 않음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사백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백 년이 지나서야 죄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심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한 세상을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고린도전서 7:31)

나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악한 세상에 사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의로운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경우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죄들이 가득하여 모두 심판을 받았 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나은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은 아닌가?

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나은가?

가버나움 사람들보다는 나은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도 도덕적으로는 끝없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들과 같은 타락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세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5)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같이 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정권을 멸시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요 어둠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말쟁이의 말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보내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세

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고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33)

여기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미 정죄를 받았으며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신의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복음 3:16~18)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았음을 믿으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로마서 8:1)

4. 이것이 인생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평화로운 삶, 건강한 삶,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성공한 삶,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밭이랑 갈며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을 추고 벌들은 꿀을 모으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전개됩니다.

1. 인생의 문제들

1) 소경

우리가 두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창조주가 빚어낸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 사계절의 변화, 푸른 하늘, 일출의 장엄함, 석양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경은 많은 점에서 불편합니다.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숨씨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만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였을까? 장수하는 것이였을까? 아닙니다. 보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마태복음 20:32,33).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값없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불편함,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2) 앓은뱅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러운데 이 사회는 장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 서부터 앓은뱅이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의 인생을 스쳐갔습니다. 장애인들과 각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한 작은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38년을 앓은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는 물에 먼저 들어갈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연못을 향해 안간힘을 다하여 가지만 다른 사람이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3) 문둥병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으로 天刑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썩어 떨어지고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썩어 떨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사람들로 부터 버림받아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꿈이 있어도 그 꿈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합니다. 정상적인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문둥병, 절망 속에서 살아야하는 문둥병, 저주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문둥병은 죄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회와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4) 먹고 살만하니 찾아오는 것

취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하던가?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난지 쓰레기 매립장, 온갖 냄새와 먼지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버려진 땅, 넓은 땅이라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상암동 그 쓰레기장에서 수수를 심어 수수 빗자루를 만들어 짚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며 팔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에게도 쟁하고 해 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가 확정되고 주경기장이 상암동의 난지 쓰레기장에 짓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보상 받은 돈으로 8층짜리 빌딩을 구입하여 매달 받는 월세가 수백만 원입니다. 이제 고생은 끝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이것이 인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어서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버려진 땅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다가 이제 편하게 살만하나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닳은 자가 그

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전도서 6:1,2)

5) 부자

부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재물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품위 있는 인생, 여유 있는 인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됩니다. 어떤 부자는 그해 농사가 너무도 잘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누가복음 12:16~19). 그는 많은 재물로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생일까?

6) 여러 번 팔자를 고쳐야 했던 여인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여자의 행복은 자신에게 있다기보다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난 부부가 함께 백년해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별하였는지의 사정은 모르나 지금은 여섯 번째의 남자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지

지리도 남자 복이 없는 참으로 팔자가 센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얻으려고 여러 번 팔자를 고쳐가며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조롱과 멸시도 다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 이 여인에게 여섯 남자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행복, 꼬여만 가는 팔자,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7) 늙는다는 것

청년, 청춘, 젊음. 인생 최고의 시기입니다. 젊음은 무언가를 더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청년의 때로 갈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분이 대학생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젊음과 내 모든 재산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서는 노숙하다는 말에 어깨를 으쓱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에는 반대로 젊다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덧 황혼에 이르고 건강하던 육체는 이제 여러 병마와의 싸움에 지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하는 것이 힘에 부칩니다. 늙는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없고 먹거나 마시는 것의 맛을 느낄 수 없으며 남자나 여자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당신의 젊음과 청춘과 아름다움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지칠 줄 모르던 힘과 우람한 근력과 강철 같은 건강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꿈과 꺾일 줄 모르던 의욕은 어디 두었습니까? 아름다움과 젊음과 청춘도 늙고, 힘과 근력과 건강도 늙고, 꿈과 의욕도 세월과 함께 사라집니다.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8) 무거운 짐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도 과중한 학습 부담에 마음대로 즐겁게 노는 것은 사치입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진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대학생이 되면 취업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업무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는 누구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자는 여럿이 합세해서 한 마리를 잡으면 배가 고플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감이 지나가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소는 배만 부르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름의 나무 그늘에 편안히 누워 눈을 지그시 감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은 천하태평 그 자체입니다. 미물인 개구리나 개미도 겨울이 되면 편안하게 쉽니다. 어떤 동물도 내일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 할 수 없는 노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기업 회장에게 기자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자 “10년 후를 생각하면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의 억만 장자들 중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이 십 수 명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여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평생토록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얽매어 살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9) 인생을 즐김

인생을 즐기면 우리가 원하는 멋진 인생이 될까요? 모델이었던 영국인 페트리샤 클루거(2011년 현재 62세). 그녀는 모델로 활동하다 미국의 언론 재벌 존 클루거와 결혼했으나 1990년 이혼하면서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750억 원(10억 달러)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매일 파티를 하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세 번째 남편을 만났으나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이 538억 6천 5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패물을 모두 팔아도 150억 원 정도입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따져보니 1년에 평균 5백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아마도 21년 동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인생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지금은 그날들이 모두 한바탕 지나간 꿈에 불과합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의 즐거움,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10) 목적지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지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위해,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그 다음은? 취업, 그 다음은? 부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늙을 것이고 병들고 허약해 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 미래를 향해 가다보니 도착하는 곳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목적지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자와 거지의 죽음이 같으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같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이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의 죽음이 같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 모두 똑 같다면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11) 소망이 없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 놀란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안도의 숨을 내쉬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살지언정 살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살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전도서 9:4). 노예로 살아도 살아 있다면 죽은 왕보다 낫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가치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가 왕으로 살며 커다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죽고 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란 살아 있는 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살아도 죽으면 살아 있는 노예보다 못한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12) 누가 돌을 던지리요

어떤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며 법을 잘 지킵니다. 그는 자신의 의와 깨끗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매우 용감합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의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격무기로 사용합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칭찬 받아야 하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명예를 귀히 여깁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만큼 의롭습니까?

의롭다고 돌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의롭지 않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13) 자녀의 죽음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부가 백년해로 하며 여러 자식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많은 것은 부모에게 행복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 통에 화살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시편 127:4,5). 부모의 행복은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인이라는 도시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도 ‘남편과 백년해로하며 많은 자식들을 두리라’ 꿈꾸며 결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일찍 사별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전통에는 화살이 많이 있어야 믿음직한데 전통의 화살

같은 자식은 아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하나 있는 아들에게 그녀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아들은 건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가냘픈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 이것이 인생일까?

14) 창조주를 모름

사람들이 유행하는 게임이나 TV드라마를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어른들도 유행을 모르면 촌스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실은 몰라도 별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실제로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할 자신의 창조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지식이요 지성이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니 무신론이니 하며 별 볼일 없는 지식으로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사람에게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두고 공부를 많이 하여도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는 이것이 인생일 수는 없습니다.

2.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던 출세를 하던 부자로 살던 어떻게 살아도 현재의 우리로서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죄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슬픔, 눈멀, 고통, 아픔, 문둥병, 수고의 헛됨, 앓은뱅이, 탐욕, 늙음, 죽음 등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또한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은 종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려고 자신은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

을 받으시리라.”(이사야 61:1~3)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눈을 떴으며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었고 38년 된 앓은뱅이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여섯 남자를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팔자 센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얻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런 몸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소망과 위로자이십니다.

3.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거친 바다를 아무 문제없이 항해를 마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이러한 환경은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베이커 (1874년)

그녀는 부모를 불치의 병으로 잃고 남동생과 둘만 남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동생도 부모가 앓았던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살리려고 따뜻한 남부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자신까지.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싸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도 솔직하게 하소연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싸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녀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풍에게 명령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 얹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녀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맘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그녀가 이처럼 악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존 뉴턴 (1725~1807년)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배를 타면서 그의 성격은 삐뚤어지고 거칠어지며 난폭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선을 타게 되면서 온갖 나쁜 일은 다하였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잘못으로 감옥에도 갔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그의 찬송은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는 82년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도 감퇴하였습니

다. 앞에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리요 우두머리였으며 부자였습니다. 세금을 오늘처럼 정해진 금액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할당된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돈은 있으나 떼뭇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위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삭개오가 기쁘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누가복음 19: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19:9,10).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던 그가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떳떳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욥(BC 2000년 경)

그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지금의 중동 지역인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재산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생의 모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 날 한 시에 모두 잃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동시 다발적으로 모두 강탈당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그의 건강도 잃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평안하던 가정은 순식간에 닥친 고난으로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최악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로 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재산을 몽땅 강탈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욥기 1:21,22). 하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셨고 재물은 이전보다 두 배로 주셨으며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재위기간 BC 970~930년)

솔로몬은 오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의 이전에도 없었고 그의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보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재위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왕이었으며 그의 부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왕비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전도서 2:11)

솔로몬을 인생으로 살게 해준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천 명의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전도서 12:13)

누구든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능합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가능합니다. 나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귀중한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5.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진실)

죽음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도대체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

성냥개비를 불에 태우면 열을 내고 재가 남게 됩니다. 성냥개비는 재와 열로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재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냥개비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존재 형태가 재와 열로 바뀌었을 뿐 에너지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은 자연에 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죽음도 똑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 존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체를 잘 아는 의학박사가 말합니다.

박사: “내가 시신을 수 없이 해부하며 각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영과 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심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혈액 중에 있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해부하고 조사했지만 본 적이 없으므로 영과 혼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러자 한 노부인이 질문합니다.

노부인: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박사: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노부인: “당신의 인체 해부칼을 내게 주어 당신의 배를 갈라서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보여주시오. 간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창자에 있습니까?”

인체 구조를 잘 안다고 해서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구조 이상의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인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격은 그의 신체가 아닌 됴됨이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그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2.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창세기 2:7)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흙은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었다고 해도 사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데 사람은 흙(물질)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몸’과 살아있는 ‘혼’과 생명의 숨인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몸과 혼과 영은 제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1) 몸 -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각 기관을 갖고 있어 보고 듣고 말하며 음식물의 신맛, 짠 맛, 단 맛, 쓴 맛, 매운 맛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

해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 몸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있습니다.

2) 혼 - 사람을 인격체라고 함은 바로 이 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부드러움, 평안, 용서, 미움, 다툼,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이 혼에 속합니다. 혼은 몸과 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기쁨과 환희와 괴로움을 느낍니다. 혼은 그 사람을 나타내므로 혼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혼에 죄가 있다면 죄인이며 지옥에 가게 됩니다. 혼에 죄가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며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3) 영 -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잠언 20장 27절). 영이 살아 있느냐 영이 죽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그 사람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왜 조금 전의 그 사람이 아닐까요? 조금 전까지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죽음이란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몸에서 혼과 영이 분리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싸늘한 사체만 남습니다. 죽음은 단지 분리된 것일 뿐 존재의 끝이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 소멸되거나 없어진다면 자연의 불변의 법칙인 열역학 제1법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분리된 혼과 영은 어찌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다’, ‘세상을 떠나다’, ‘숨을 거두다’, ‘영면하다’, ‘북망산(북망산천)을 찾아 먼 길을 떠나다’, ‘돌아가다’ 등의 표현에는 죽음에 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1) 죽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정확하게 가던 시계가 건전지의 방전으로 멈추면 “시계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6,17)고 하셨으나 아담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 안에 있던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인공위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국가가 지상에서 인공위성과 교신을 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다 인공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위성과의 교신이 끊어집니다. 인공위성 자체는 우주에서 잘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A의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

람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이 태어나면서부터인데 반해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으로 몸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호흡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는 민감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나 영의 죽음에는 아주 둔감합니다. 그런 죽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육신은 반드시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으시므로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2) 세상을 떠나다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지상 혹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몸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묻힌 그 곳도 세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을 땅에 묻지 않고 미이라로 보존한다고 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어도 모든 것이 몸과 함께 세상에 남아 있다면 죽었다고 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죽은 몸은 세상에 남아 있으므로 세상

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과 영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은 하늘나라와 지옥 중 한 곳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나라? 지옥?

하늘나라와 지옥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 있을 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갈 집이 정해져야 합니다. 인생도 죽기 전에 갈 곳이 정해져야 합니다. 죽고 나서 갈 곳을 찾는다면 가장 원하지 않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갈 곳을 알고 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3) 숨을 거두다

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세기 2:7). 숨을 거둔다는 것은 생명의 숨(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4) 영면하다

영원히 잠드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자고서도 시간이 아주 짧게 여겨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잠든 사람은 살아 있으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

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테살로니가전서 4장 13,16절)

5) 북망산을 찾아 먼 길을 떠나다

북망산(北邙山)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백이 찾아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망산은 북쪽에 있는 영계의 세계로서 너무나도 먼 곳에 있어 한 번 길을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북망산은 얼마나 멀리 있으며 왜 북쪽에 있는 산일까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시편 48편 1~3절)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이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의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도 시온 산이 있습니다. 지상의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의 예표입니다. 시온산에는 위대한 왕의 도시가 있으며 그 도시에는 궁궐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또 북쪽은 이 세상의 신이 자기의 왕좌를 가장 두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좌가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

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이사야 14장 12~14절)

북망산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입니다.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그곳은 별들 위에 있습니다. 매우 먼 곳입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북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년 사시사철 관찰할 수 있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방향의 안내자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압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늘을 푸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북망산은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 시온산입니다.

6)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말 그대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거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전도서 3장 20절)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전도서 12장 7절)

몸과 영은 왔던 곳이 있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돌아갈까? 혼은 흙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하늘나라요, 다른 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혼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누가복음 16:23,24).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4. 생명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처음의 존재 목적에서 떠나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의 모든 기능들을 상실하는 것이며 파괴하는 것이라면 생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존재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기능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몸과 혼과 영이 정상 작동되어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인공위성을 A국가가 기술자를 보내어 완전하게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A와 인공위성은 다시 예전처럼 교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은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A편에서 보면 인공위성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인생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고장 난 우리 인생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지

만 생명이 없으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작은 씨앗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지만 땅은 씨앗이 생명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을 삼키지 못합니다. 부활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누구라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맺는 말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시작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위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사람은 죽음을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누가복음 12:15).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는 그런 영생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전쟁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죄와 어둠과 불의가 더 이상 없는 곳, 의와 빛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극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 일서 5:11,12)

6. 사람은 왜 죽는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이든지 나쁜 결과이든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성공에도 원인이 있고 실패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의사가 대뜸 약을 지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정비소에 가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과일 경우 원인을 알면 그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원인을 알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죽음도 원인을 알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1. 결과: 사람은 죽는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결과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거나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히 9:27). 죽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므로 살아 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전도서 7:2~4)

당신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까?
 왜 사람은 죽으면 돌아오지 못할까?
 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을까?

우리는 죽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에 너무 익숙하여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음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경기나 시험의 결과가 나쁘거나 병에 걸리면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다음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이나 경기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은 철저히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심각하게 잘못된 결과입니다. 죽음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2. 원인: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왜 죽는가?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걸 왜 물어? 죽음이 너무 당연합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가요? 아무리 당연한 것이

라 해도 반드시 원인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원인을 노화, 질병, 사고, 전쟁, 기근과 같은 것에서 찾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겠군요. 노화, 질병, 사고, 전쟁, 기근 등이 죽음의 원인이라면

왜 늙을까?

왜 질병이 있을까?

왜 사고가 있을까?

왜 전쟁이 있을까?

왜 기근이 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요? 죽음, 늙음, 질병, 사고, 전쟁, 기근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생명, 젊음, 건강, 안전, 평화, 풍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주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요?

노화방지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왜 늙어야 하는가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왜 질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가요?

전 세계가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을 반대하고 UN을 만들만큼 평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도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요?

세상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콩을 심고 팔을 거두기 위해서는 팔을 심습니다. 만일 콩을 심어놓고 팔을 거두려고 기다리는 농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농사나 세상일이나 이치는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얻은 것은 처음부터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익숙하지만 잘못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은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죽음을 거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연히 죽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씨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죄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죽음은 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심고 죽음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3.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즉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지금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내 이브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풍성한 소출을 내었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서와 의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오직 한 가지 명령만 지킨다면 죄와 죽음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

라, 하시니라.”(창세기 2:16,17)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외에도 동산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serpent)이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뱀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으며 오히려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창세기 3:4,5)

이제 아담과 이브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놓여 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뱀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하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경위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아담과 이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생명이, 다른 쪽에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결과는 뱀의 말처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선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또한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이었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는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로마서 5:12)

사람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같은 죄인이요 정죄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죽음 아래 놓여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택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의와 생명입니까? 죄와 죽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십니다.

4.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선악과라는 나무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토록 엄중하게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1) 죄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을 믿

습니다. 거짓말임을 알면서 그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수기 23:19)? 그런데 사람이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다는 것은 뱀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겼습니다.

2)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한다면 그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거나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편 119:11)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존귀히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3)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뱀은 진리를 가리려고 거짓을 제시합니다. 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고 나서 실증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거짓말들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심판은 없다.” “하늘나라도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마귀도 없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죽음 후의 일들은 죽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다.” 어쩌면 당신에게 전부 진리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귀, 지옥, 하늘나라,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서 45:18). 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를 원한 것이지요. 당신은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다른 통치자를 원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사무엘기상 8:5).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위협을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워진 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격한 결과입니다.

5) 죄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네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이사야서 14:12~14)

루시퍼는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뱀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자식이 자신을 낳고 힘써 길러준 부모보다 원수를 더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로마서 1:25)

6)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반역 행위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린도 전서 4:7)

사람들이 자랑하는 재능, 우리 몸의 각 지체들, 양심, 도덕성,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등등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살려는 반역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반납하고서 독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 사람에게 남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죄를 안고 독립적으로 살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옥은 죄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7) 죄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

십니다. 그러나 뱀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온 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뱀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죄가 가진 무서운 해악입니다. 사람들이 원자폭탄은 무서워 하지만 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자탄은 사람의 70~80년 인생만 끝장낼 수 있지만 죄는 몸과 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끝장낼 수 있습니다. 원자탄에는 피폭되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사람을 반드시 죽게 합니다. 죄는 원자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섭고도 사악한 독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 죄의 기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므로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는 다섯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네 그룹은 왕좌의 사방을 둘러싸고 한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덮는 그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 너는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에스겔 28:12~15)

덮는 그룹은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졌고 창조된 날부터 완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가는 존재였습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대단히 교만해졌고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17).

그는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이사야서 14:12~14)

경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천사들을 끌어들여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의 교만, 그의 불법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죄로 인하여 그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영존하는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마태복음 25:41).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6.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임을 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고린도전서 15:3,4)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14)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에베소서 1:7)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헛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린도전서 15:3,4)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사도행전 2:31,32)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디모데후서 1: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용서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한복음 3:36)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사도행전 13:38,3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7. 죽음 이후

죽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릉도원? 염라대왕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공허?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공분을 일으킨 악인이 죽으면 그가 죽어서도 가장 악한 곳으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장 좋은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그런 곳이 존재할까? 죽음은 장막이 굳게 드리워진 곳. 살아있는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곳. 오직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세대가 한 번 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 그 곳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죽어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알아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를 알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편과 저편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므로 그 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도 아십니다. 죄인과 의인의 죽음 이후가 다릅니다.

죄인의 죽음 이후

1. 제일 먼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

심판은 의로운 자가 왜 하늘나라에 가는지, 죄인은 왜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심판은 사람이 죽기 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하나님의 심

판도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하실 것이며 죄인은 반드시 정죄하실 것입니다.

1) 심판의 주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영광의 왕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당신은 아직까지 그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자를 믿지 않습니다. 어찌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알레르기 같은 거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골로새서 1:16).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요한복음 12:47)

만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날, 그 날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절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한복음 12:48)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당신이 거절한 것은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거절한 그 말씀이 심판 날에 당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당신이 거절한 그 말씀이 당신을 거절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한 말씀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2) 심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는 날 심판대에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 날!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니 네 말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마태복음 12:36,37)

당신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하여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하게 될 회계 보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3)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로마서 2:5~8)

의로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격노와 진노를 받게 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당신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혹은 예수쟁이들에 대해 실망하였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고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베드로전서 2: 22~24)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 있나요? 설사 당신이 그리스도인과 논쟁하여 이긴다 해도 의롭게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논쟁하기 좋아하며 계속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한다면 심판 날에 화가 될 것이며 두려우신 하나님의 격노와 진노를 쌓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2.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죄인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땅 밑에 있는 감옥입니다. 땅 중심부는 온도가 수 천도나 되는 뜨거운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

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나 죄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잠언 10:24)

불타는 지옥을 눈으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그 곳을 피하고 싶으나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지옥으로 내던져져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백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낙을 위해 영원을 희생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후회 하겠지요. 여기 70~80년을 위해 영원을 희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으므로 최고급 옷을 입었고 매일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을 즐깁니다. 그는 마음이 그를 기쁘게 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눈이 보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누가복음 16:19~3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2:15).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살인이나 강도, 도둑, 사기, 거짓말 같은 범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하여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죄 아래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사는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행한 악한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 복음 3:18)

3.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죄인이 받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요한계시록 20:11~15).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른 죄의 경중만 따질 뿐이지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를 따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의 경중에 따른 형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결과가 둘

째 사망이라 불리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이 흰 왕좌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4. 불 호수가 있습니다

흰 왕좌 심판의 결과 결코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더라.”(요한계시록 20:15)

이곳은 본래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 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4:41)

불 호수는 세상을 속이던 마귀와 마귀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였던 그의 모든 일당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요한계시록 19:29)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요한계시록 20:9,10)

짐승(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멀지않은 날에 있을 7년 대환난의 끝에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신으로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세상을 속이던 마귀도 불 호수에 던져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요한계시록 19:20, 20:10).

사람이 마귀와 그의 일당에게 속아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도 억울한데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까지 내가 받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의인의 죽음 이후

1.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모든 인생이 동경하는 곳,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 저택을 마련하신 곳입니다.(요한복음 14:2,3)

2.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의 형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보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상 결과에 따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로마서 14:10, 요한계시록 20:4~6)

3.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운명의 결정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와 지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하는 영원한 운명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죽기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있을 곳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을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당신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늘나라 혹은 좋은 곳으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하늘나라행을 확보해 놓으셨나요?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될까요? 10년? 20년? 그러면 지금 80년, 90년을 사신 분들에게 여쭙어 보면 그분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갈 확신에 차 있을까요? 그분들도 당신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백년이 걸려도 천년이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우리의 더 많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베드로전서 2:22~2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2)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3)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나무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사도행전 5:30)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9)

4)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의롭게 됩니다. 사망이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석가, 공자, 마호멧, 어떤 선생, 어떤 교주, 어떤 지도자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믿어도 별 볼일 없으며 안 믿어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8. 죽음과 부활

1. 죽음은 왜 두려운가

죄인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두려운 것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극형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가 산에서 포효하면 동네 개들이 두려워 오줌을 싸고 동네가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밭에 자주 출몰하여 피해가 커지자 농부들이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똥을 가져다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두었더니 멧돼지가 오지 않더라고 합니다. 개나 멧돼지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호랑이가 자기보다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원의 모든 동물들은 사자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상대가 나보다 강하여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인식될 때 생겨납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

BC 1063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적어도 3m~3m 20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무거운 철판을 움직이는 크레인인 그의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쇠 그물 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7kg이나 되었습니다. 낫 투구를 썼고 낫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으며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을 가려 주었습니다. 골

리앗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투사가 거의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매일같이 도전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 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사무엘기상 17:8~10).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의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17:11). 이길 수 없는 적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사형수 이야기〉

서울 구치소에 근무하며 사형수들의 형이 집행되는 것을 지켜본 박효진 장로의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었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사인이 있으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지 사형수들에게는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방에서 나와서 어느 지점에서 면회소로 가는 길과 사형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면회소로 가면 안도하고 사형장으로 이끌면 표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기 스스로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교도관이 양쪽에서 꼭 부축하여야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은 축 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오줌은 줄줄 싸고 눈동자는 풀리고 입은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사형장까지의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걸음은 천천히 하고 시간을 끌어보려고 안간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사형장! 평소에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영원한 두려움입니다.

2. 이길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여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예로 든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였으므로 40여 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사무엘기상 17:32~37)

사자나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준비하여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소년 다윗에게서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네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45~47)

다윗은 단 한 개의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혀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 놓느니라. …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15,18). 예수님께서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실 것과 셋째 날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마태복음 16:21)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마태복음 17:22,23)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적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3. 예수님의 죽음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죽음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

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히브리서 2:14~16)

사람은 모두 죄 있는 첫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므로 죄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라도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속세와 담을 쌓고 살아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힘쓰며 성경을 공부하고 깊은 수양을 쌓아도 죄를 없애거나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욕을 하고 자기 몸을 고난에 내어준다 해도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해결 없이는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신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요한복음 10:1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고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는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

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마태복음 27:62~66)

4. 예수님의 부활

이제 예수님은 죽었고 묻혔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삼키듯 예수님도 삼켰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모든 인생을 삼켰습니다. 죽음은 삼킨 자를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가는 길로 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생의 운명을 짊어지고 죽었고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3일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대로 죽으셨다가 삼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고 운명의 시간은 카운터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냐? 부활이냐?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집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밤 12시에서 다음 밤 12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즉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부활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고 날이 밝고 해가 넘어 갑니다. 짧고도 긴 날이었지만 이날도 무덤은 열리지 않았고 부활은 없었습니다. 역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해는 무심하게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고 저녁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3일이 지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밤이 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라는 의구심에 찬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갑니다. 만물은 숨을 죽이고 적막감이 감도는 고요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정신적으로 부활했다 해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죽음이 현실이라면 죽음을 이기는 것도 현실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실제라면 죽음을 이기는 것도 실제여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가 승리합니다.

넷째 날 이른 새벽, 밤의 적막한 고요가 물러가고 날이 밝아 왔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궁금하기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무덤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머뭇거립니다. 실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제쳐두고 여인들이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결과는 밝혀질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이 여전히 문을 굳게 지키

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든 죽음이든 한 쪽은 재기불능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이날도 역시 죽음이 건재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멍에를 메어야 하고 죽음의 횡포에 자신을 영원히 내 맡겨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셋째 날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든 축각을 곤두세우고 이날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목격자인 제자 누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 1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 2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 3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 4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 5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 7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 8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 9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 10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
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 11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
니라.
- 12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
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
며 떠나가니라.

(장면을 바꾸어서)

- 36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 37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 3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
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 39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 4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 41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 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 43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 44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 45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46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47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48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49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
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
라, 하시니라.
50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
복하시더라.
51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
로 들어가시니라.
52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1~13, 36~53)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두는 것처
럼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그
날 인류를 억압하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하였습니다. 철학,
종교, 과학 그 어느 것도 능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적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막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막는단 말인가!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의 시체를 훔쳐 갔다, 하라.” 그들의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을 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었으므로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20:25). 8일 후 예수님께서서는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8~29)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

라.”(로마서 6:9)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디모데후서 1:10)

5.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4,15). 예수님께서 자신은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시려고 공명심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자량을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랑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저주요 수치입니다. 저주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라디아서 3:13).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인의 의롭게 됨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이 의롭게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

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로마서 4:25).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을 평안히 맞이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6. 부활의 증거들

지금까지 죽음만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다음의 사실들이 부활을 믿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신을 믿고자 합니다. 만일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신이라면 그는 신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범한 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아무런 권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BC 900년 경 대언자 엘리야가 묵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심한 병으로 죽자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열왕기상 17:17~24).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수벰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열왕기하 4:32~37). 그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사로와 나인 성 과부의 독자와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청문회에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사도행전 26:8)

2) 부활은 예언되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오래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시편 16:10)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이사야서 26:19)

초실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서도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초실절은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레위기 23:10,11)

단을 흔드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이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린도전서 15:20~23)

3) 부활은 익숙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전혀 생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익숙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 주십니다. 식물의 씨를 묻으면 썩지만 다시 싹이 납니다. 씨가 묻혀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 복음 12:24). 그러므로 농부들은 해마다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부활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고린도전서 15:35~38)

4) 빈 무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은 후 봉인을 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흠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나 무덤이 비었습니다. 제자들이 봉인을 떼 내고 파수꾼의 감시를 피하여 시체를 흠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돌이 같이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 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요한복음 20:1~10)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지만 누구도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요 꾸며낸 말이라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흠쳐갔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만하면 제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터인데도 말입니다. 무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부자의 묘실로 알려진 곳입니다. 수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무덤이 빈 것은 그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이 있으되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한 언론인이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부활 기록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그의 시도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 - 〈생명의 말씀사〉라는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5) 겹쟁이들의 변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 다니며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며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고백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들어왔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께서 막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을 당하시자 제자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닥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을 미혹하였다는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던 신성모독자를 선생과 주로 믿고 따라다녔으니 이제 제자들은 죽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설사 죽음을 면한다 해도 그 땅에서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제의 겁쟁이가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니라.”(사도행전 3:12~15)

제자들은 이일로 체포되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심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며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사도행전 4:18).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

노라.”

제자들은 위협을 받고 풀려나자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잡혀가 심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제자들은 응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사도행전 5:28~32)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사도행전 5:41,42)

무엇이 이 겉 많은 제자들을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당신은 거짓인 줄 알고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6)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십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방법으로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에게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열두 제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보이셨습니다. 한번에 500여명에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6).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이 공개적이었듯이 부활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그분의 부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7.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부활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요한복음 5:28). 예수님의 음성은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십니다.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39,4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까지 잠잘 것이며 주님의 깨우시는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4:13~15). 그날에 들게 될 주님의 음성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

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6,17)

8. 부활의 소망

그날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단 한 개를 뿌려도 싹이 납니다. 오래된 씨앗도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단 한 개의 싹도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요한복음 10:10,11)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11~13)

당신은 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9. 죽음은 패배하였고 사망은 패하여졌다

들었노라! 믿었노라! 이겼노라!

1. 죽음은 가장 두렵습니다

해적이 체포되어 사람을 죽인 것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적은 판사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그의 죄를 단정할 수 없어 관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적은 관청에서 다리를 못 쓰게 될 만큼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왜 시인하지 않느냐고 묻자 “당신이 나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도 왼쪽 다리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하면 그래도 두 팔이 있습니다. 팔을 절단한다 해도 목은 붙어 있습니다. 목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습니다.” 관리는 그의 시인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여 그의 죽음을 면케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악한 범죄자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지라도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선고 받으면 안도합니다.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생불사하는 약이 있다면 사람은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구하려 할 것입니다. 천만금의 재물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 앞에서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죽음이 70~80년 지나면 모두에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약 25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지 못하느니라.”(잠언 27:1)

2.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초라함

어느 날 호랑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토끼가 산에서 왕 노릇합니다. 토끼가 조그마한 짐승들 앞에서 자신의 키가 얼마나 크며 귀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며 털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자신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며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토끼는 더욱 신이 나서 자기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어느새 돌아온 호랑이가 토끼를 삼켜버렸습니다. 토끼의 왕 노릇은 호랑이가 나타남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토끼는 그 산에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능력과 지식을 스스로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도 뛰어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유전자 정보지도(게놈)을 완성하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 같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고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의 평가일 뿐입니다. 토끼가 왕이 되려면 호랑이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듯이 인간도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의 존재는 죽음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자랑을 폐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군주도, 백만 대군을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히틀러나 폴포트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였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지극히 초라하고 무능하며 왜소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 있는 개

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전도서 9:4,5)

3.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확장되고 발달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는 한 사람이 산천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곳에서 사는 사람에게 그곳의 풍토와 풍속, 인정 등을 물었습니다.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커다란 기대를 갖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의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그는 매우 실망스런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번씩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죽음에 예외인 지역도 없고 예외인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 아첨하고 뇌물을 쓰면 5년이나 10년 정도 집행이 유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27)

4. 죽음의 광포함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포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재위기간 BC 1010~970년) 그의 아들 압살

룸의 주검 앞에 슬피 울며 애곡합니다. “오 내 아들 압살룸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룸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룸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사무엘기하 18:33)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엄마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라마에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아이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18)

장례식장에 아직 유치원에 다닐 어리디 어린 두 남매가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아빠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를 자동차 사고로 동시에 잃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을 위로하겠는가? 누가 그들의 절규를 잠잠케 할 수 있겠는가?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난폭한 폭군입니다. 우리와 상의 한 번 없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이 그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때 한 번이라도 우리의 허락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광포함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죽음 앞에서의 슬픔과 절규와 애통함이 패배자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엄청난 광포함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죽음에게서 자비로운 처분을 기대하십니까?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들과 범법을 덮어 주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죽음에게서 어떠한 자비도 긍휼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사랑하는 이의 운명을 죽음에 내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광포함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갚아 있습니다.

5. 여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비록 강장하여 인생 위에 군림하며 엄청난 횡포를 부렸을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시고 친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므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 주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내게는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요한복음 10:15,17,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천 년 전 예루살렘 성 밖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예언대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으며 죽음은 패배하였고 사망은 폐하여졌습니다. 세상의 철학, 과학, 종교, 지식 그 어느 누구도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9)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디모데후서 1:1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지금까지는 인생이 죽음에 의하여 폐하여졌습니다. 사람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망이 폐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사는 길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을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신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에 찬 외침입니다. 당신도 죽음을 향해 이처럼 당당히 큰 소리로 외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6. 죽음에서 해방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지배 하에서 신음하던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기 위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억압 받지 않는 자유의 나라 대한 독립은 이 나라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었으며 고초를 겪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자유 독립의 소원이 미국에 의해 일본이 패망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었고 빛을 찾았고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과 자유를 환호하였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죽음의 권세 아래 속박당하며 두려워 떨던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었습니까?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죽음이 예수님에 의하여 패배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며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당신에게 죽음이 패배하였다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이 아직 당신 위에 군림하며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아직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고통으로는 부족합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선처로 해방되고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도 아니 1초라도 그들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압니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가 되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당신은 압니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당신은 압니까?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모든 슬픔과 눈물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광포한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였음을!

당신은 압니까?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폐하던 사망이 폐하여졌음을!

당신은 압니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사망에
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
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
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요한복음 5:24,25)

7. 죽음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방비로 가만있다가 왜적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
다. 장군의 승리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
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들을 훈련하고 무기를
손질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략전술을 세우는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에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연례행사
처럼 태풍이 찾아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불어오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재앙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곳이 존재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불탄 곳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수풀이 키를 넘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불은 바람만큼이나 빠르게 마른 풀의 끝부분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닥쳐옵니다. 사람이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면 불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당신이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은 당신 앞에 불을 지르고 불이 탄 자리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불이 탄 자리는 불이 다시 올 수 없으므로 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바로 죽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자리로 피신한다면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리로 피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10.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라고 물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 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화기, TV, 컴퓨터, 연필, 지우개 등등 복잡하거나 단순한 어느 것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어떨까요? 즉 태양, 지구, 달, 공기, 바다, 물 같은 것들에도 목적이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에 목적이 없다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며 창조주가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에 목적이 있다면 만드신 분(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18)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유인력과 원심력

지구에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은 두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서 물체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짧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커집니다. 반대로 물체가 작고 속도가 느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적어집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 할 때 벗어나려는 힘으로서 무게가 무겁고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멀면 힘은 커지고 무게가 가볍고 속도가 느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적어집니다. 지구는 약 1억5천만km 떨어진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9,000km(초속 30km)의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의 크기만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엄청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원심력만 있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우주공간에 정처 없이 떠돌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원심력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균형으로 인해 지구는 궤도를 유지하며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현재보다 멀거나 지구가 지금보다 크거나 원운동 속도가 지금보다 빠르다면 원심력이 인력보다 커지므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기온이 떨어져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거리가 현재보다 가깝거나 지구가 지금보다 작거나 원운동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다면 원심력보다 인력이 커지므로 지구는 태양에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만유인력이 지금보다 크거나 작아도 안 되며 원운동 속도가 지금보다

빠르거나 느려도 안 되고 태양이 지금보다 크거나 작아도 안 되며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보다 가깝거나 멀어도 안 되고 지구가 지금보다 크거나 작아도 안 되며 지금보다 무겁거나 가벼워도 안 됩니다.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절묘한 균형.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2. 기적의 궤도(life zone)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태양과의 유일한 거리를 말합니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149,600,000km로서 지구의 온도가 다양하여 평균 15도 정도로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낳게 합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금성은 평균온도가 430도나 되며 화성은 평균 -50도로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구가 생물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궤도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 지구 대신 다른 행성이 이 궤도에 있다고 해도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면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거나 공기가 아예 없거나 희박하다거나 흙이 없거나 목성처럼 가스로 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시편 115:16)

3. 자전 속도

지구는 시속 108,000km(초속 30km)의 속도로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12시간씩 교대로 바뀝니다. 낮에는 온도가 올랐다가 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 낮으로 바뀌므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낮과 밤의 12시

간 교대는 낮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과 밤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일 자전 속도가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진다면 하루의 길이가 현재의 10배인 240시간이 될 것입니다.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 될 것입니다. 낮의 온도는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밤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름은 너무 뜨겁게 될 것이며 겨울은 너무 춥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크기,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지구에는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온도만이 아니라 낮과 밤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전 주기가 수성은 59일, 금성은 243일, 목성과 토성은 약 10시간 남짓합니다. 자전 주기 24시간은 낮과 밤이 각 12시간씩이므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간이며 사람이 일하고 휴식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 24시간이 우연일까요?

4.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

다른 행성들도 자전을 하지만 놀라운 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 가운데 우리의 지구처럼 그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23.5도의 기울기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23.5도의 기울기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자전할 동안 지구표면에 태양빛을 고루 비추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면적을 훨씬 넓게 해줍니다. 만일 자전축의 기울기가 수평이거나 수직이라면 사계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은 심하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적도 부근은 과열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울기 23.5도가 우연히 되었을까요?

5. 지구와 달의 관계

달은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은 지구의 모든 해안과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므로 모든 항구와 해변들의 악취 나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사람이나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조수로 인해 해안에 파도가 부서져서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플랑크톤은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플랑크톤 없이는 산소 순환이 부족해져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지구와 달의 거리가 현재의 거리보다 가깝다면 산소는 풍부해지겠지만 밀물과 썰물은 지구에 엄청난 조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멀다면 바다는 산소가 부족하여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누가 달을 적절한 크기로 만드시고 가장 알맞은 거리에서 궤도를 운행하게 하여 지구에 가장 알맞은 밀물과 썰물이 있게 하였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진화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창세기 1:16)

6. 오존층

햇빛은 생물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햇빛에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자외선, X선, 감마선, 고주파선 등의 빛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존층은 대기권의 성층권에 있는 얇은 막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에서 지상의 생물에 치명적인 광선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유익한 광선만 통과하도록 합니다. 이 장막(오존층)의 외부는 춥고 어두우며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

니다. 그러나 장막(오존층)안은 적당한 햇빛이 들어와 우리가 따뜻하고 밝은 곳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누가 하늘에 그토록 넓은 장막을 펼쳤을까요?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시매”(시편 19:4)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시편 104:2)

7. 대기권

밤하늘에 보이는 유성(별뚥별)은 우주의 지구 침입자입니다. 대기권은 우주의 침입자인 수십억 개의 우주파편과 운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구 방위 사령부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파편과 운석들이 그대로 지구상에 닿는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서울의 중심부에 큰 운석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법자들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운석이라 할지라도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 사막에 운석충돌로 인해 생긴 직경 800m가 넘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는데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50배라고 합니다. 대기권은 지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구를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는 운석과의 충돌로 생긴 크리에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대기권의 보호로 충돌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은 약 160여 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행성에는 없는 대기권의 지구 보호가 우연한 산물일까요?

8. 공기

대기권의 공기 구성과 비율 또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의 다른 요소들(이산화탄소, 수증기, 네온, 헬륨, 메탄, 크립톤, 수소, 일산화탄소, 크세논, 오존, 라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산소가 21%에서 15%로 줄어든다면 산소가 부족하여 사람은 질식할 것입니다. 반대로 산소가 30%정도 된다면 호흡하기는 좋겠지만 화재 때문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질소는 불에 타지 않으나 산소는 25% 함량이면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질소 78% 대 산소 21%의 구성 비율은 사람이 질식할 염려도 없고 화재의 위험도 없는 놀라운 구성 비율입니다. 산소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21%의 함량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다른 행성들을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지구와 같은 대기권을 가진 다른 행성이 없다고 합니다. 공기는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것입니다.

9. 질소의 순환

공기의 대부분(78%)을 질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른은 암에 걸릴 수 있으며 산소의 운반이 방해를 받아 각 기관들이 산소의 공급을 받지 못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경우 청색증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는 1/5(21%)에 불과하고 4/5(78%)는 질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질소 화합물에 중독되지 않고 안전한 것은 질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질소는 극도로 잘 녹지 않고 잘 섞이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공기를 들이마셔도 질소가 우리 몸에서 녹거나 섞이지 않으므로 질소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한편 질소는 동식물 단백질의 주성분으로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질소는 극도로 잘 녹지 않고 잘 섞이지 않으므로 사람이 공기 중의 질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을 통하여 질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동물은 식물에게서 질소를 얻습니다. 식물은 땅으로부터 질소를 얻습니다. 질소가 많으면 비옥한 땅이요, 적으면 척박한 땅입니다. 농부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질소 비료를 줍니다. 땅은 극도로 잘 녹지도 않고 잘 섞이지도 않는 질소를 어떻게 섭취할까요? 여름철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번개가 매개체입니다. 10만V가 넘는 번개의 순간 고온에 의해 공기 중의 질소가 녹아서 땅에 스며들게 됩니다. 번개가 매일 같이 땅에 떨어져서 매년 수억 톤의 질소를 토양에 공급하여 식물들의 영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질소의 절반을 땅은 번개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기, 질소의 안전함, 질소의 독특한 특성과 공급 방법, 이것이 우연일까요?

10. 물의 양과 부피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입니다. 물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습니다. 이러한 물의 성질은 지구의 70%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몸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육지가 바다보다 넓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물의 양이 너무 적어 온도 조절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달은 물이 없으므로 낮에는 +130도

나 되며 밤에는 -160° 까지 떨어집니다. 만일 지구도 물이 없거나 조금 뿐이라면 이처럼 엄청난 온도 변화가 밤낮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그런 기온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뿐 아니라 어떤 동식물도 살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90%이상 차지한다면 온도 조절 기능은 잘하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물의 비율과 물의 양이 우연히 되었을까요?

물의 부피 또한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물체는 0° 에서 부피가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기차선로 같은 강철도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물은 0° 가 아닌 4° 에서 부피가 더 작아집니다. 물은 얼 때에 부피가 커지고 가벼워집니다. 물의 표면이 먼저 얼므로 얼음 아래의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러한 물의 성질 때문에 추운 겨울에 강이나 호수의 표면이 먼저 얼게 되고 물고기나 생물들이 겨울에도 물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다른 물체와 같이 0° 에서 부피가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갈수록 부피가 작아진다면 강이나 호수는 바닥에서부터 얼게 될 것이며 여름이 되어도 얼음은 잘 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나 물풀들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산소 공급도 끊어져 생명체가 멸절될 것입니다.

왜 물은 다른 물체들과 달리 온도가 내려갈수록 가볍고 부피가 커질까요? 누가 물에게만 이런 특성을 주었을까요?

우연일까요?

11. 비

물은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서 항상 아래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만일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만 한다면 내륙 지방에는 물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륙 지방에도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려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물은 열을 받거나 식물을 통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무게가 공기의 1/8에 불과하므로 공기 중에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구름이 되어 바람을 따라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증기가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습니다. 소금은 물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물을 증발시키면 무거운 소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소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수증기의 무게가 공기보다 무겁다면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고 소금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수증기의 무게가 공기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항상 구름 속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며 구름이 내륙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내륙 지방에는 비가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수증기와 공기의 무게를 정하였습니까? 누가 수증기의 무게를 공기보다 훨씬 가볍게 하여 구름이 높은 곳에 형성되어 내륙 깊숙이까지 비를 내리게 할까요?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욥기 28:24,25)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 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예레미야서 10:13)

12. 바다의 순환

바닷물은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 회로를 따라 더워진 물은 찬 곳으로 차가운 물은 더운 곳으로 순환하여 흐름으로 물고기의 서식지가 확대 됩니다. 바다가 순환하지 않으면 온도가 필요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온도가 너무 내려가거나 하여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곳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바다의 순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 줍니다. 누가 그 거대한 바다를 순환하게 하였을까요? 사람이 바다의 순환을 발견한 것은 불과 150여 년 전 미국인 마우리(1806~1873)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바다에 길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길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시편 8:8)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화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지구 환경 즉 만유인력과 원심력, 기적의 궤도, 자전 속도, 자전축의 기울기, 지구와 달의 관계, 대기권, 공기, 질소의 순환, 물의 양과 부피, 비, 바다의 순환, 오존층 등등 이외에도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들로 갖추어져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것도 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서 45:18)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이사야서 42:5)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히브리서 3:4)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기초위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잘못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로마서 3:10, 23).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인의 운명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떠맡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

서 5:21)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즉 죄를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불에 달군 뜨거운 쇠를 물에 담그면 쇠의 열이 물로 옮겨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떠맡으신 것입니다.

2)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떠맡으셨으므로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24)

3)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린도전서 15:3,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린도전서 15:20~23)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죄가 되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교주들? 철학자들? 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11.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 날줄과 씨줄이 엮여지고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원수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았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천상천하에 가장 힘 있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지닌 분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죽음의 권능을 이긴 분이십니다. 최고의 지위를 지닌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라면 이보다 더 좋은 친구, 형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분이 나의 원수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렵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과는 결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한 것은 이분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순전히 당신이 이분과 친구 되기를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분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나 혹은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분을 조금도 꾸미거나 과장 없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완전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Lord)”는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

의 창조주이시므로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主)도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선생님과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극히 싫어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마귀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당신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 겸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힘이 있으면 은연중이라도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힘이라면 누구도 예수님과 필적할 수 없습니다.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의 군대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신분이 하나님이셨으나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신분인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

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립보서 2:6~8)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태복음 20장 26~28절)

그리스도께서는 주 Lord와 하나님이니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2. 시험을 받으시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자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버리는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악한 계책들을 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맞다하면 이스라엘을 배신한 자라고 꼬투리를 잡을 것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하면 카이사르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고소할 것입니다. 맞다고 해도 함정에 걸리고 맞지 않다고 해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달라고 하여 동전을 보이며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태복음 22:20,21)

그들은 또 다른 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요한복음 8:5)?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 그녀를 살려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으므로 율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7).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시험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가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이 대신하여 보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번 시험을 받으셨으나 자신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토록 시험하며 시기하여 죽음에 넘겨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누가복음 23:33,34)

3.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해 삽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목적도,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

니다. 내가 잘되어야 하고,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으므로 죽으실 필요도 없으시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요한 분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질 필요가 없으셨으나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아들로 입양되게 하시려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처럼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4.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합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강변하여도 통하지 않을 때 더욱 상처를 입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화병이 되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소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서 임명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직접 심문해 보았어도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그분의 무죄를 확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헤롯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갈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심도 없었고 변호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법도 그날은 부재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체포하여 그날 낮에 즉결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으나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 받았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 의하여 정죄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지극히 의로운 재판관을 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자 못하게 막으십니다. 오직 의롭게 심판하실 분에게 자신을 내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12군단이 넘는 하늘의 군대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아무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죄함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잠잠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 공황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과 함께하거늘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나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마태복음 14:13,14).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많은 사람이 기진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15:32).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보리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은 남자만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황히 여기십니다. 이런 분이 내 구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6.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꼬치꼬치 캐물으면 성가셔서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얼버무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8년간을 한 번도 눕지 않고 초인적인 극기수행을 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던 성철 스님, 그는 불교사상 보기 드문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었으며 한국 불교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1983년 하안거 결제(結制)에서 고백합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

본성적으로 솔직한 성품의 성철스님은 열반송에서(1993. 11. 5)

“한 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는 평생 자기 자신도 속아서 거짓말을 최상의 진리로 알고 한 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음을 한탄하며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

으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37,38)

예수님은 말씀과 행함이 완전히 일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분께서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진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베드로전서 2:22)

7.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므로 자식들을 위해 청춘과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한일서 4:9,10).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사랑보다 조건을 따집니다. 자신보다는 상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고 없고, 똑똑하고 아니고, 잘 생기고 못 생

기고, 득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심히 부족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까워서 껴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단점들을 알게 되어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결코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빠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인격에 반하고 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심을 시인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베드로전서 2:22~24)

우리가 이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손실은 없습니다. 그분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원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성질이 나빠도 내 친구만은 진실하고 나

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원수로 대하신 적이 없고 미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왕좌도 버리셨고 부요함도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도 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라면 가장 진실한 친구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진실하신 분께서 당신의 친구요 형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12.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일 수도 있고 악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한 목적으로 찾아 왔다면 우리는 그를 반가이 맞이함이 옳습니다. 악한 목적으로 왔다면 우리는 그를 거절하거나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은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맞아들인다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왔는데도 우리가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 한다거나 문 앞에 세워둔다면 우리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은 4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뱀이 아담과 이브를 속여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 죄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15). 이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갈라디아서 4:4). 사람으로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천 년 전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백 번 옳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이 선하다면 그분을 즉시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유익하며 옳은 일입니다. 만일 악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옳으며 유익합니다.

1.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려고 오심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21)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천연소대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예레미야서 2:22). 또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예레미야서 13:2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2.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심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공흘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12,13)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10,2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신의 의를 신뢰하겠습니까?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3.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심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마태복음 18:11)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누가복음 3:31).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에베소서 2:12)

집을 잃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잃어버린바 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횡포에 신음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니다. 죽음이 인생을 속박합니다.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바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찾아 오셨습니다.

4. 우리를 섬기려고 오심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태복음 20:28)

사람은 누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셔도 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빌립보서 2:7,8)

5. 대속물로 주려고 오심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마태복음 20:28)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을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들을 대속할 수는 있어도 죄를 제거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브리서 9:26b~28)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6.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오심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찢어 꿰뚫어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누가복음 2:34,35)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지 않아야 할 많은 비밀들을 마음에 숨겨둡니다. 마음은 우리의 비밀 창고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비밀을 마음에 숨겨두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블랙박스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열어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져간다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모든 비밀은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낱알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사무엘기상 16:7)

혹시 당신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을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마가복음 7:20~2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보셔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7.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려고 오심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누가복음 4:43~44)

사람들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정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만일 하늘나라라는 곳이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늘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므로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 진리, 영광, 빛, 자유, 생명, 기쁨,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소망을 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8.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심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 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8~40)

육천 년 전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한 번도 “아니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오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고린도후서 1:19,20).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 마지막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라는 죽음의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하셨을 때 슬퍼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한복음 1:11,12)

9.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심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0:10)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한 알만 심어도 싹이 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단 한 개의 싹도 싹을 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일서 5: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 발로 나가서 그분을 맞이함이 옳습니다.

10.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요한복음 12:47)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1. 빛을 주시려고 오심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요한복음 12:46)

빛은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더라”(요 1:4).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어둠에 덮인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며 발밑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빛은 어둠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는 매우 깨끗하게 보였던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는 보기에 민망할 만큼 더러운 것을 알고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보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고 길을 잃지 않게 하며 발밑에 있는 것을 알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다시는 어둠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12.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려고 오심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갈라디아서 4:4,5)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0년 정도 살지만 지나고 나면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며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는 천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3. 우리 대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9)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자이시므로 그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죽음을 친히 맛보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자신의 창조물인 천사들보다 낮게 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창조물인 천사들보다 낮게 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부한다면 어찌될까?

14.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오심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

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4,15)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8,9).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5.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14)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선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 쉼 없이 수고하지만 이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일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선한 일을 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16.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오심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에베소서 2:16)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사람이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한일서 4: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로마서 5:10)

17.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심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요한일서 3:8)

마귀는 세상을 통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 왔고 죄를 짓게 하였으며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자신의 악한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론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전쟁이 났다거나 아프다거나 다쳤다거나 싸웠다거나 죽었다거나 누구에게 속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거나 파업, 폭력, 범죄 소식과 건강에 적신호, 불안한 노후, 전쟁, 테러 ... 같은 나쁜 소식들입니다. 설사 기쁜 소식이 있다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분의 세상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18-19).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누가복음 4:21)고 하십니다.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좋은 모든 목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과 극의 운명으로 나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모든 선한 목적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13.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부딪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왜 이처럼 문제가 많은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에 갈 수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선생들이 있는데 왜 다른 종교들과 선생들은 안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1. 생명이신 분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단 한 개의 씨도 싹을 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그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요한복음 6:40). 우리는 모두 영생을 원합니다. 문제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종교에 있다면 우리는 종교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과학에 있다면 과학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만든 사람도 죽었고 과학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생명이 없어서 죽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과 그 분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일서 5:11,12)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도 생명이 주어집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하고 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싶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1:25,26)

2. 죽음을 이기신 분

어떤 사람이든 그의 인생은 반드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어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종교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도 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의지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종교는 당신에게 결코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으나 죽음을 이긴 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고 엘엔지 화잇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천 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9)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으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나 무덤을 향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5,57).

사람이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이기신 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 있는 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우리의 죄가 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므로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사악한 자는 반드시 정죄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인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사형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요한복음 15:1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달리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심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므로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이 친히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이 있으나 나의 죄가 되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님이 마땅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굴복함이 마땅합니다. 모든 혀가 그분을 주Lord시라고 시인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유일한 화해 헌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요한일서 2:2)

4. 우리를 사랑하신 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람의 아름다운 외모를 사랑하거나 능력을 사랑하거나 학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당신은 자신의 외모, 능력, 지식, 명예, 학벌, 재산, 집안이 아닌 순수하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5.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만일 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양을 노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의 것이므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샅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헤치느니라”(요한복음 10:11~13).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목자이시므로 우리의 출신, 배경, 환경,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 현재가 어떠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보다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6.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영적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아

고보서 2:10,11). 사람들은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하시지만 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할 수 있으셨으나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시려고 율법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로마서 10:4).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갈라디아서 2:16)

7.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3). 온 우주를 통틀어서 창조주는 한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도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경배해야 할 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조성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이사야 45:18)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의 마지막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분만이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하리라.”(로마서 14:11,12)

8.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되시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이사야 53:3,4).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는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5,16)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장하셨고 피곤해 하셨으며 주무셔야 했고 음식을 드셔야 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와 죽음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슬퍼하셨고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9. 유일한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개입함으로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쪽이 화해하기에는 요구사항이 정반대입니다. 화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 * 완전하게 순종하라.
- * 거룩하라.
- * 의롭게 되라.
- * 세상은 악하므로 세상에서 구별되라.
- * 죄를 지으면 안된다.
- *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
- *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한다.

이제 죄인인 사람의 요구입니다.

- *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므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야고보서 2:10). 율법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을 달라.
- *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미 죄가 있으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전도서 11:9),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여도 사망의 길일 수 있으니(잠언 14:12)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세상에 속하여 있으므로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다.
- *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 * 죽으면 끝장이므로 죽음으로 죄를 갚을 수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
- * 지옥은 가장 비참한 곳이므로 죄가 있다고 해도 하늘나라로 보내 달라.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요구를 단 한 가지도 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양쪽이 어느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중재자는 어느 한 편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십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므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의 자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이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은 완전한 순종과 거룩과 의가 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셨으며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요구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십니다(고린도 전서 1:30).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셨으며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죄인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디모데전서 2:5)

세상에는 선생들도 많고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이시요 신이시며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한복음 14:6). 당신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신뢰할만한 분이라면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요구 조건들을 이루셨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14.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으로 지친 사람에게 복음은 시원한 물입니다. 소경에게 복음은 보는 것입니다. 시한부 환자에게 복음은 병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전장에 있는 군인의 가족에게 복음은 승전 소식입니다. 죄수에게 복음은 죄의 사면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10/23)

죄는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뿐만 아니라 죄인의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고 죄의 대가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복음은 누군가가 나의 죄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망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군가가 나의 죄가 되어준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죽어준다?

죽으면 끝인데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나를 대신 죽여주겠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놀라운 일이 2000년 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린도전서 15:3,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천연소대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예레미야서 2:22).

2)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27).

3) 하나님께서는 죄와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5)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6) 친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요한복음 15:13).

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으나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가 되시고 죽음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해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의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로마서 4:25)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그토록 속박하던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 패배하였고 사망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9)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디모데후서 1: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예

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 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린도전서 15:2~4)

2. 이천 년 전의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자.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00년 전의 그분이 어떻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속이 나와 상관있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완전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황소나 염소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한 희생물이 아니었으므로 해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히브리서

10:3,4)

하나님께서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이런 희생물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희생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10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14절)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17,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드러진 영원한 희생헌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그분은 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2)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첫 사람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므로 아담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나는 아담에게서 태어나므로 아담과 같습니다. 아담이 죄 있으므로 나도 죄인이고 아담이 육체이므로 나도 육체이고 아담이 죽었으므로 나도 죽었습니다. 아담이 흠에 속하므로 나도 흠에 속하고 아담이 흠으로 돌아가므로 나도 흠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육천 년 전의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담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것은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 5:12).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담과 같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며 죽음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나시며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한복음 1:12,13)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후서 1:3,4)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므로 그분은 나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3. 믿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집이 새 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이사를 하고서 가전제품을 전원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합니다. 내가 집을 지은 것도 아니며 전기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떤 사람이 전기공사를 하였는지 몰라도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도 이 집에 들어와 살 사람을 위하여 전기를 들어오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전기의 전원에 코드만 연결하면 됩니다. 믿음은 전원에 코드를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마음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9,10)

4. 구원을 위한 질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한일서 2:2)

- 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까?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까? (죄들)

-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온 세상’)

- “우리”와 “온 세상”에는 나도 포함되니까?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며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로마서 1:16)

- 무엇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수고가 아닙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를 무엇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입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도 구원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

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브리서 4:2)

-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반으리라.”(사도행전 16:31)

5. 복음의 효능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라면 압도적으로 ‘돈’일 것입니다. 돈에는 대단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의식주는 해결해 주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 즉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지옥의 문제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돈으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의 근원적 문제들을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죄들을 깨끗하게 하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는 원수관계에서 화해하게 하며 수고와 슬픔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

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공허함에서 만족함으로 바뀝니다. 복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고린도전서 15:42~44)

6. 복음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엄청난 효능을 가진 복음에 대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값을 지불해야 하거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 복음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고 엄청난 효능들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로마서 3:23,24)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에베소서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

복음 3:18)

-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았습니다.

- 정죄를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살인, 강도, 음행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십계명,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선행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7.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훌륭하고 학식도 있으며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었을 뿐 나의 죄를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선생을 믿었더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죄로 인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누가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겠는가? 종교들? 선생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a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

러면 이제 b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c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d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e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f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로마서 5:8-11)

- a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 b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 c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 d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e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f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Lord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의 이수 없이 졸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8. '자신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영적입니다(로마서 7:12,14). 그러면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 것 아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바울만큼 열심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빌립보서 3:5,6)

바울의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9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 되려 함이라.”

두 가지 ‘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바울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의’입니다. ‘내 자신의 의’에 대하여는 로마서 10:3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
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2:21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으로
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거나 종교를 믿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
니다. 나의 죄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15.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특성이 정해집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에게서 태어나므로 하루살이의 특성을 갖습니다. 새는 새에게서 태어나므로 새의 특성을 갖습니다. 사자는 사자에게서 태어나므로 사자의 특성을 갖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므로 사람의 특성을 갖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태어난다면 어찌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태어난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의로운 분으로부터 태어난다면 우리도 지극히 의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갖춘 두 번째 출생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죽음 노화 질병 슬픔 아픔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런 출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러한 두 번째의 출생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 출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출생>

1. 첫 번째 출생의 특성

1) 육신적 출생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입니다. 육신적 출생에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있습니다.

2)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출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출생에는 우리에게 조건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일 뿐입니다. 왕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고 평민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부자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자유한 자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고 종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민주 국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공산 독재 국가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며 건강한 체질로 태어날 수도 있고 허약한 체질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3) 불공평합니다.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보니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다른 만큼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기쁘고 아름다운 사연보다 아프고 슬픈 사연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좋았던 일들보다 안 좋았던 추억들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연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연을 책으로 엮어도 몇 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그

러할 것입니다.

5) 죽음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출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음입니다.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환경이 크게 나아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출생은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xx년에 태어나고 00년에 죽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멀리 가더라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반드시 “죽다”로 끝납니다. 사람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됩니다.

2. 첫 번째 출생의 숨겨진 비밀

첫 번째 출생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에 당신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죄를 모릅니다.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으며 거짓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순진무구합니다. 어른들이라면 몰라도 그런 아이들도 죄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문제는 아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죄는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조부모의 죄는 증조부, 고조부, 5대조, 6대조 ... 거슬러 올라가면 죄는 결국 인류 최초의 조상 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로마서 5:12)

죄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므로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에게서 죄 있는 아담의 형상을 갖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아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로마서 3:10,23)고 선언 하십니다.

2) 죄의 종으로 출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이 죄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죄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리라.”(예레미야서 13:23)

3) 마귀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마귀의 자식,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당신은 자신이 이런 상태임을 상상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마귀에게서 태어났느냐?”

“내가 언제 불순종 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

당신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출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옛날에 반역죄로 한 집안이 연루되었을 때 그 집안의 어린아이들은 반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반역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반역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37~44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39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41 너희는 너희 아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출생하였으나 속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마귀의 자녀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 받을 운명입니다.

육신적 출생이라 해도 좋고 죄인이라 해도 좋고 마귀의 자녀라 해도 다 좋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마귀의 운명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에 던져질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장 41절)

죄인,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영원한 형벌, 이것들은 첫 번째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종교, 철학, 교육, 사상, 매스컴, 정치, 사회, 심리학, 과학, 그 어느 것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괜찮은 곳이요 살만한 곳이요 꿈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만일 사람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안다면 누구도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인가요? 모두 진실입니다. 세상에 진실만큼 우리에게 낮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낮은 것은 세상이라는 거짓의 체계 속에서 진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에야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알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출생을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두 번째 출생은 어떨까요?

<두 번째 출생>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집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유와 거룩함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넘치는 곳에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출생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분으로부터 출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eternity)에 거주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왕좌로 삼으시고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치리자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요한복음 3:4)? 이것은 니고데모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요한복음 3: 5~8)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신적인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한복음 1:12,13)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입니다.

첫 번째 출생은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출생은 나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출생의 특성

1)하나님에게서 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첫 번째 출생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는 육신적 출생인 반면,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당신은 혹시 육신적 재 출생을 기대하였는데 영적 출생이라고 하여 “역시나”하고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육신적 출생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천 번 만 번이라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설사 당신이 원하는 육신적 출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부모가 가진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출생하게 됩니다.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결국은 멸망할 그런 헛된 것을 허락하시면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 출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실망스런 출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제적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출생입니다. 출생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멸망할 일도 없습니다. 죽는 일도 없습니다. 늙는 일도 없습니다. 병드는 일도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출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한일서 3:2)

2) 죄가 없습니다.

자녀의 죄가 죄 있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라면 죄 없는 분으로부터 태어난다면 그 자녀도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서 태어난다면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같이 자녀도 의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한1서 3:9)

3)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면 우주만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런 아들이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4)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 나인 성 과부의 독자, 나사로 모두 그분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능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로마서 6:8,9)

사람에게서 첫 번째 출생을, 하나님에게서 두 번째 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출생으로 인생을 끝낸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베드로전서 1:3)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23)

16.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1.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요 범죄자라고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고 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나고 항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하늘나라와 지옥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못가지요.”

“하늘나라에는 못가도 연옥에는 갈 겁니다.”

“지옥에 가겠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늘나라에 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당신의 양심적인 대답이 하늘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의롭다면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까?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하늘나라에 갈 만큼 의롭지 못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둘러 표현해도 대답은 지옥이었습니니다. 불행하게도 당신이 죄인으로 죽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죄로 인해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

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한복음 3:18)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사람도 없으며”(로마서 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2. 죽음은 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거나 죄인으로 살거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도 죽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만일 죽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죽음은 어떤 죄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를 압니다. 어떤 분들은 독립투사로 헌신했고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어 일제에게 대한민국을 팔았으며 애국자와 독립투사를 잡아가두고 고문하였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그 이전의 행위들을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또 해방이 되었다는 이유로 애국자와 매국노를 똑같이 대우한다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갚아야 마땅합니다. 그분들을 명예롭게 대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국노에게는 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며 공평입니다.

의로롭게 살거나 죄인으로 살거나 죽으면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정의도 공평도 아닙니다. 죽음 후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있고 죄인에게는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 정의요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지극

히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해방이 일제지배하의 행위들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듯이 죽음 또한 생전의 일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죄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비극적인 결과가 죽음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의롭다하실 것이며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늘나라에, 죄인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음은 결코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3. 죄의 문제

죽음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온갖 죄들(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욕.....)이 있지만 당신이 볼 수 없으므로 당신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죄들을 숨길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사무엘기상 16:7)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므로 죄를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누

구도 죄를 갖고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죽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에 의지하거나, 엄격한 금욕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행하지만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당신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천연소대로 네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예레미야 2:22)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로마서 5:12)

“죄의 값은 사망이나”(로마서 6:23)

죄는 사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생명 이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24)

4. 하나님의 해결 방법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 후서 5: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든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로마서 10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즉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직 죄인이며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 악하거나 노력을 적게 하였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즉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압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가톨릭의 신부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있다면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0~22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많은 종교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 안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길을 다 만들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25~27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

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결론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17.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죄인이라는 말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창 2:16,17). 그러나 많은 사람의 공통된 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느냐?”

“선악과가 없으면 먹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것 아니냐?”

“왜 선악과를 두어서 사람을 죽게 하였는가?”

1. 선악과가 없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죽도록 지어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선악과 때문에 온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 외에는 죽는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것이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죽음이란 단어나 죽음이란 개념조차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일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텐데 하나님은 왜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없어도 인생의 비극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아무도 죄가 없었으나 이후에 천사들 중에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루시퍼(죄를 지은 후 마귀가 됨)와 일군(一群)의 천사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사탄)과 반역한 천사들(타락한 천사들)은 죄를 지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비극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41)

반면 사람에게에는 죽음이 있지만 죄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죽음은 없겠지만 천사들처럼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타락한 천사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 회개할 기회 없이 영존하는 불에 던져지는 비극을 막으시려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므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 선악과를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죽게 하시려고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야고보서 1:13)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동산에 두셨을까?

1) 죄의 비참함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에덴동산은 그들에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였으며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도 없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창세기 6:3).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며 썩을 것이고 정죄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음으로 남자 아담은 수고의 형벌을 받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그녀의 바램이 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낙원 같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의 생전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자식들 간의 살인사건입니다. 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로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에 뿌리가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룰 뿐 아니라 간음, 음행, 부정함, 색욕,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댐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시려고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죄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족함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불만은 죄의 원인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자신의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일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탐냅니다.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해나 질병이 없고 살인, 간음, 도둑, 폭력 같은 범죄도 없습니다. 땅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냅니다. 곡식은 잡초나 병충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위험도 없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학비, 병원비, 월세,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각종 세금 등등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브는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뱀이 그녀에게 “너희가 그것(선악과)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

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리라.”(창세기 3:5,6)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이 땅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에는 죄가 필연으로 따라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 난후야 비로소 동산의 풍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없고, 없고, 없고, ... 없는 것뿐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가져야 만족한다면 그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합니다. 집이 있으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이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전도서 5:10)

만족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왕의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부자 집에서 태어나거나 권문세가의 집에서 태어나도 만족하기를 배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하고 적은 것을 가지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배워야 합니다.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

저도 만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빌립보서 4:11,12)고 말합니다. 그는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히브리서 13:5a). 우리가 만족하기를 배운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7,8)

3) 감사를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만족도 없고 만족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들도 넘치고 불평할 조건들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신의 능력인양 자랑하고 뽐내며 거만을 떨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의 재능과 비교하여 교만 혹은 불만의 근거로 삼습니다. 재능

은 정말 자신의 것일까요? 헤롯왕이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아마도 카리스마 넘치는 음성으로 연설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백성이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음성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사도행전 12:22,23).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것 하나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불평하고 키가 작다고 불평하고 피부가 검다고 불평하고 코가 낮다고 불평합니다. 불평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주신 것을 불평거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과 이브의 경우를 통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자라므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보다 당황스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풍족한 가운데서 자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수중에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는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타국에서 굶어죽게 되었구나.” 그는 아들이 아니라도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악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5)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철저히 억압된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세계에서 자란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보기 전에는 생명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이 그대로 계속 산다고 합니다. 그가 과연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생명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뒷전이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돈, 명예, 성공뿐입니다. 죽음 앞에서야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죽음을 맛볼지라도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가 돌이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동산에 선악과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놓은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시고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3. 새로운 선택의 기회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담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아담의 몫입니다. 아담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담

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죽음만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도 공평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하였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요한복음 3:3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죽음의 길을 갔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죽음이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아닙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인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은혜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8. 복(福)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합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매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러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로 얽혀집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면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복을 받은 흥부의 이야기입니다. 흥부는 마음씨가 매우 착하지만 복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흥부는 자기 집에 찾아온 제비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불쌍히 여겨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겨울이 다가오자 따뜻한 남쪽나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 돌아오면서 흥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福'(복)자가 새겨진 박 씨를 하나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가 박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흥부는 그 박 씨를 심어 잘 키워서 박을 따다가 쪼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을 쪼개니 금은 보화가 쏟아집니다. 두 번째 박을 쪼개니 비단과 옷가지들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 박을 쪼개니 쌀과 먹을 것들이 쏟아집니다. 네 번째 박을 쪼개니 목수들이 나와 기와집을 지어 놓습니다. 흥부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흥부가 박을 쪼개 때마다 복이 쏟아진 것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는 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복을 원합니다.

1. 복은 영원해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져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다가 저 멀리 많은 물을 봅니다. 반가움에 “물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신기루! 우리는 오늘 이 신기루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덕종 때 광릉이라는 곳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하여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개미국) 왕의 명령으로 왔다는 두 사람이 그를 모시러 왔다고 하여 순우분이 그들을 따라 갔습니다. 입구에는 금으로 ‘대괴안국’이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우분은 그곳에서 공주와 결혼하고 또 남가군의 태수가 되어 20년 동안 선정을 베풀며 왕의 사랑과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부인의 죽음으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깨어보니 짓던 밥이 아직 끓고 있었습니다.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후 많은 재산도 바닥이 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인해 비극적 인생을 마감합니다. 설사 죽을 때까지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을 때는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재물, 권력, 부귀영화가 썩거나 사라집니다. 썩거나 사라지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영원하여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풍성한 열매를 얻으므로 말합니다.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 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라.”(누가복음 12:17~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20)

2. 복은 유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복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에게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복 있는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자는 복이 많은 사람이므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돈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인해 귀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형제간에 불화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돈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귀가 따가울 만큼 많이 듣습니다.

로또복권을 사는 사람은 1등에 당첨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어려운 1등에 당첨되는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로또복권으로 거액을 받았으나 아내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못마땅하고 남편은 아내가 친절 쪽에만 돈을 쓰는 것이 못마땅하여 그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몇 개월 뒤

에 이혼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 교포가 250억 원의 거액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바닥났고 세탁소를 운영할 자금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은 이전보다 더 궁핍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전도서 5:13)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전도서 5:10)

돈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디모데전서 6:5,6)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나 우리에게 많은 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복이 화를 준다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참된 복은 아닙니다. 참된 복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세상이 주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3.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의 복은 출세와 성공, 돈과 권력, 건강과 장수 등 모두 이 세상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의 특징은

1)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지 아무리 길어도 그의 인생과 함께 끝납니다. 억만

장자도 죽으면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절대 권력도 죽으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외모도 건강도 살았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길어도 70~80년 정도 허용될 뿐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두 세상에 반납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70~80년 사용권을 가질 뿐입니다.

2) 악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이며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의 소유이며 마귀의 왕국입니다(마태복음 4:8,9).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며 악한 곳입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요한일서 5:19). 이 세상의 주인이 악하고 세상도 악하므로 세상이 주는 복도 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복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처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그것은 이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하며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가져다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러 꿰뚫었도다”**(디모데전서 6:10).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의 혼을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파는 어리석은 파우스트(괴테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와 같습니다.

3)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

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한일서 2:15,16). 그래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야고보서 4:4)

이처럼 세상이 주는 복은 우리 육신에게 만족을 주지만 화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모든 것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화도 없습니다.

신명기 28:1~14의 말씀입니다.

- 1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 2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 4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 떼가 복을 받고
- 5 네 바구니와 네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 7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네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 8 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 9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 10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 11 또 주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 12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 13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 14 너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의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

령들을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모두 이 땅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지금은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교회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린도전서 10:32). 교회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차이는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나 교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에베소서 1:3).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복을 강조합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번창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이나 형통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골로새서 3:2)

내가 억만장자라면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까? 정말로 주님께서 속히 세상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릴까? 모르긴 해도 억만장자라면 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에 혹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은 대가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없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러 꺾었도다.”(디모데전서 6:9,10)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마태복음 24:45~47)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a그분께서 b그리스도 안에서 c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d모든 e영적인 복으로 f우리에게 복을 g주셨으니”(에베소서 1:3)

우리가 받은 복은

a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은 수여자에 따라 복의 크기와 질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

의 왕이시며 주들 중의 주이시며 우주만물의 대주재이시므로 그분의 지위에 어울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질과 양에 있어서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을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b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지금 즉시 주어집니다.

c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죽은 후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며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요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늘나라는 인생이 돌아갈 본향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자녀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복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d 모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산은 있으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거나 재산과 건강은 있는데 자식이 없거나 한 가지가 채워지면 다른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빈곤이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8:9)

e 영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썩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이므로 물질적인 복과 달리 죽어서도 영원히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

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 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베드로전서 1:4,5)

f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게 그런 기득권이 없다면 복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 '나에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누구나 “우리에게”가 됩니다.

g 주셨으니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중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말을 잘 들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복은 주어집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켜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복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된대거나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므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확실히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을 살게 됩니다.

6.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에베소서 1:4~14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에베소서 1:4)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의 새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한일서 3:9)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에베소서 1:5)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요한일서 4:1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심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니 이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며 그분의 형제가 됩니다(로마서 8:29). 못난 아들이 아닙니다. 3)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면 나는 공로 없어도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은 그 집에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들이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

도를 통한 상속자니라”(갈라디아서 4:7).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로마서 8:17a)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에베소서 1:6)

사람은 모두 마귀의 자녀로 어둠에 속한 자요 힘도 없고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빛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곳,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왕국에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언제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들어갈 것이요 내일 죽으면 내일 들어갈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에베소서 1:7)

죄는 인생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는 것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구속(救贖)하셨으므로 죄들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0:17)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로마서 8:1)

정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라.”(히브리서 10:19,20)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들의 용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에베소서 1:8,9)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흥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켜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에베소서 1:6,12,14)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 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7,8)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70~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8,29).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부정한 영을 명령하여 내쫓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이 뵈 젖이 복이 있나이다”**(누가복음 11:27).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1:28)

〈이백억 상속받은 줄 모르고 얼어 죽은 노숙자〉

미국 와이오밍 주에 사는 노숙자 티모시 헨리 그레이(60세)씨는 2012년 12월 26일 영하 12도에 달하는 혹한의 추위에 와이오밍 주 에반스톤의 한 철도역사에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친척인 미국의 구리광산 여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가 2011년 5월 104세로 숨지면서 남긴 유산 3억 7000만 달러(약 3274억원)의 6.95%인 1900만 달러(약 202억원)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크의 변호인들이 그레이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십 년 전 연락이 두절된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 씨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을 알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2012년 12월 31일자 문화일보)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17)

우리가 그레이처럼 복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9. 용(龍)의 정체

1. 용Dragon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고로 용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매우 신비스럽고 범접하기 어려운 상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용에 관한 이야기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며 재미있습니다. 수많은 전설들에 단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용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이무기의 이야기는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인지 실패하여 이무기로 남을 것인지 얼마나 가슴 졸이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용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 용 댔다, 등용문, 잠용(대통령 예비 후보자), 용오름, 용꿈 꾸다, 공룡기업 등.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출세, 권력, 부귀, 성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원하는 바의 성취와 상관있습니다. 용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용꿈을 최고로 좋은(길한) 꿈으로 여깁니다. 태몽 중에서는 용의 태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용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이야기에나 용에 관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은 항상 최고중의 최고로 언급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와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용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귀히 여겨집니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 최고의 위엄, 최고의 지위를 뜻하게 됩니다. 왕을 최고의 권위로 상징되는 용과 비교하여 표현합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자리를 용상, 왕이 입는 옷을 곤룡포(용포), 왕이 타는 수레를 용가라고 합니다.

용은 과연 상상이나 전설의 동물일까요?

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런 길한 존재일까요?

2. 용의 존재

용의 존재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매우 크고, 뱀처럼 길며 구불구불하고, 비늘이 있으며, 얼굴은 무섭게 생겼고 입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으며 불을 내뿜습니다. 혀는 뱀의 혀같이 갈라졌고 눈은 부리부리하며 머리에는 위용을 자랑하는 뿔이 달려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으며 범접하기 힘든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에게서 느끼는 것은 엄청난 힘과 권능과 무서움이며 인자함과 선함과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용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상상하여 그려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각 나라마다 제 각각의 용이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한결같이 용은 힘과 권능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될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의 모습은 상상하여 그려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용의 모습입니다.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leviathan 거대한 바다짐승)으로 언급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꺾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이사야 27장 1절)

욥기 41장에는 이 리워야단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3절 “그가 네게 많은 간구를 하겠느냐? 그가 네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5절 네가 새와 놀 듯 그와 놀겠느냐? 혹은 네가 네 여종들을 위해 그를 묶겠느냐?

8절 네 손을 그에게 대어 본 뒤에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14절 누가 그의 얼굴의 문들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은 무섭게 빙 둘러 돌아 있다.

15절 촘촘히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 있는 그의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16절 비늘과 비늘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19절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21절 그의 호흡은 숯불을 지피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25 ~ 28절 그가 일어설 때에는 강력한 자들이 무서워하며 처부숨으로 인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도다. 그에게 달려드는 자의 칼도 견디지 못하며 창이나 작은 창이나 사슬갑옷도 견디지 못하는도다. 그는 쇠를 지푸라기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나니 화살이라도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없고 돌팔매 기구의 돌도 그에게는 지푸라기가 되는도다.

33절 땅위에는 것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만 들어졌느니라.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 스리는 왕이니라.”

리위야단은 머리가 일곱 개이며 뿔이 열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와 같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시74:1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관이 있으며”(요한계시록 12:3)

리워야단은 바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용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실재하는 존재입니다. 그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 용의 정체

용의 정체가 다 밝혀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아무도 용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숭배는 고사하고 그의 사악함에 치를 떨 것입니다. 용이 사람으로부터 숭배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용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용은 자신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존재인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간첩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 궁금하기는 하겠지만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자신을 밝히지 못 할까요?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며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형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용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하나님과 용 어느 쪽을 신뢰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여러 가지 이름을 알면 정체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 용의 여러 가지 이름

* **루시퍼**(이사야서 14:12) – 아침의 아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아침은 매우 존귀한 신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그러나 루시퍼는 자신의 존귀한 신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지극히 영광스런 지위였지만 반역으로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 **덮는 그룹**(에스겔서 28:14) –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는 그룹 중에서 왕좌를 덮는 그룹입니다. 그룹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였습니다(12). 그는 하늘에서 제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베헤못**(욥기 40:15) – 거대한 짐승으로 강물을 삼키는 존재입니다. 대환난 때에 삼킨 강물로 이스라엘에게 홍수를 일으킬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2:15).

* **리워야단**(욥기 41:1, 이사야 27:1, 시 74:14) – 머리가 여러 개(정확하게는 7개)입니다. 그는 구부러진 뱀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용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바다가 아닌 하늘 위에 있는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의 한가운데를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창세기 1:6~8)

하늘 아래의 물은 태평양, 대서양과 같은 바다입니다. 하늘 위의 물은 용이 살고 있는 바다입니다.

* **큰 용, 사탄, 마귀, 옛 뱀**(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 지금 현재도 세상을 속이는 자이며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옛 뱀serpent(창세기 3:1, 요한계시록 12:9, 20:2) – 그는 주 하나님

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탄 -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고소자입니다. 그는 세상왕국의 소유자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가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베드로, 유다, 야나니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합니다.

마귀 -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요한일서 3:8).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처음부터 죄를 짓도록 지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루시퍼가 교만하여 죄를 지으면서부터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며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요한복음 8:44). 그는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 거짓과 거짓말이 가득한 것은 이 거짓말쟁이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억누르는 자이며(사도행전 10:38)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하며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사도행전 13:10). 그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이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4,15)

2) 용의 과거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매우 아름다운 존재로 천상에서 찬양 대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매우 존귀

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입니다(욥기 41:34). 사람들도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출세 지향적인 인간의 모습은 루시퍼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이사야 14:12~14, 에스겔서 28:11~19). 그는 자신의 반역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주합니다.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과 심판과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같이”(로마서 5장 12,18절)

3) 용의 현재

그러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개과천선하여 하나님께, 사람에게 속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악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1)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마태복음 4:8,9). 그는 이 세상 왕국을 통하여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부귀와 영화, 명예, 지식, 문화, 예술, 교육 등등 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용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하고 추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이 추구하던 그

것들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는가요? 그러나 당신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되는 날,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부귀와 영화, 명예가 아니라 의와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에 있었다라면 당신은 세상에서 그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었어도 그 속에 의와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의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마치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하며 당신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텃밭일 뿐입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나 성공이나 출세입니까? 당신은 세상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면 됩니다.

(2)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며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위해 곳곳에 금송아지, 우상, 여신상, 돌부처, 돌조각, 돌단, 나무 조각, 장승, 서낭당 등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지구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절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새기거나 조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형상에게 절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장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경배를 알지 못하는 신

에게 경배함으로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당신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4:3,4)

(3)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에베소서 2:2)

4) 용의 운명 (미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인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장 41절).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용이 비록 세상 왕국을 가졌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 해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요, 세상을 속이는 자요, 사람에게 가장한 죄를 짓도록 만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숭배할 존재가 아니며 대적하여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야고보서 4: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의 한 가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로 이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4,15)

4. 용의 사악함

용이 길한 존재일까요?

용은 자신이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파멸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 대하여 심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멸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운명이 되게 하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사람이 죽으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자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 용은 악의 화신이며 사람의 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합니다. 여기모두가 손가락질할 만한 한 악한 사람과 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19~31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몰 쓰듯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최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서는 눈썹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버려진 음식으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한 불쌍한 거지에게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거지도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자신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남아있는 다섯 형제는 이 지옥의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남은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 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누가복음 16:27,28).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악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망당할 것이며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런 곳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속여 그 비참한 멸망의 장소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합니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도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요한계시록 12:12). 이것이 용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이 보다 더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악의 본체입니다.

5. 우리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용이 이처럼 악한데도 사람들이 그를 신성한 동물이요 길한 동물이라고 떠받들고 있으니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자가 들어간 이름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화룡사, 용화사, 용문사, 금룡사, 청룡사, 용주사, 쌍룡사, 김룡사, 용추사, 정룡사, 구룡사 …… 이들이 용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용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의 전설을 이용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면 용의 영험이 당신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요.

우리 한 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1)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 용을 섬긴다고 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용을 팔고 있는 것이며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 이름을 팔고 있을까요?

2) 용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용의 실체는 모른다고 합시다. 용의 실체를 모르면서 용을 섬긴다면 그들은 생각이 없거나 당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나 고양이에게 절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어도 개나 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3) 용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용의 실체도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용의 힘을 빌어 당신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일 수 없습니다. 무당의 신통력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그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초능력에 감탄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지옥의 위협에 처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의 인생을 보고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일까요? 당신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4:3,4)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당신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지극히 사악한 ‘이 세상의 신’(용)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서 46:10)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지음



- 신내침례교회 담임목사: 전 종 욱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551(5층)
- 교회전화 : 02) 435-0068
- 휴대전화 : 010-9191-1207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32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침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36	9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3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6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이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군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군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군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 종 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 영 군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 종 욱	294	8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군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군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